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About Report

### 특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2009년 8월 현재, 1,016여명의 회원과 24명의 운영위원, 그리고 13명의 상근활동가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행동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담아 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발간 목적	구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과 성과, 그리고 장기 전망의 예측</li><li>▪ 구성원들의 성장과 재생산 가능성의 점검</li></u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회원의 지속가능성</li><li>2. 재정적 지속가능성</li><li>3. 운영위원회의 지속가능성</li><li>4.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li><li>5. 사업(활동)의 지속가능성</li></ol>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회적 책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의 노력과 활동 점검</li><li>▪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활동의 책임에 대한 평가</li><li>▪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대</li></ul>	

### 작성 원칙

이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G3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검토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당시부터 회원 총회 정보, 재정 정보, 운영위원회 회의 정보를 모두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2007년 도입된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http://info.action.or.kr> 에는 이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단체 활동의 주요 내용이 위키 시스템으로 정리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그동안 공개했던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되, 외부의 언론보도 내용과 내부 분석자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데이터는 사무처와 운영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거쳤으며, 외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인 한겨레경제연구소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 차례

#### I. 보고서 개요 about Report

특징 | 발간 목적 | 보고서 구성 | 작성 원칙 | 검토 | 보고 범위 | 보고 기간 | 보고 주기 | 연락처

#### II.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개 about CAN

인사말 | 설립 목적 | 주요 사업 | 단체 개요 | 걸어온 길 | 비전, 미션, 핵심가치 | 운영원칙  
재정 및 자산 현황 | 구성원 현황 | 조직구조 | 의사결정구조 | 주요 활동

#### III. 이해관계자 CAN's Stakeholders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요 이슈 선정 과정 | 중요 이슈 선정 매트릭스 | 중요 이슈와 대응 방향

## 보고 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로, 기타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 활동을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상 협약을 맺고 있는 협약 기관은 이번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은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소통 권리 확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이버문화연구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영 학교인 지속가능경영학교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한겨레경제연구소'로, 두 기관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특정한 사업을 위한 협력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범 초기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초기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회계연도 기간 중 진행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 일부 내용은 2009년 8월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은 관리되고 집계 가능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 보고 주기

이 보고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로 창립 후 10년간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 연락처

보고서와 기타 시민행동의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t. 02-921-4709 f. 02-3144-4709 e. action@action.or.kr

(121-8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 INDEX

### IV.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CAN

회원	규모   구성의 다양성   월 회비와 납부 방법   참여 활동   의견과 기대 사항
재정	재정원칙   수입 현황   지출 현황   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운영위원회	임원   구성과 역할   구성 현황   기여와 준수 의무   활동 실적
상근활동가	현황   근로조건   교육   고용원칙   총원   인턴과 자원활동가   퇴직
사업	예산감시   정보인권   좋은기업만들기   정책대안   기획실   공익소송센터   인터넷 시민학교 환경적 성과

### V. 부록

재무제표 | 수상실적 | 검토의견서 | GRI INDEX | 함께하는 사람들 | 부가정보



#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

## 그 첫 장을 열며 | 대표 인사말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10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올 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시민행동은 예산감시, 주민참여제도, 정보인권, 기업 사회책임, 페어라이프(Fair Life) 등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들을 개척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역단체들의 활성화와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와 교육, 캠페인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거나 주목받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 시민행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마련하는 활동들을 해온 10년이었습니다.

### 2009년 현재의 시민행동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오히려 기존에 해 온 역할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과 회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가의 충원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그간의 역할이 설 자리를 잃은 반면,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시민운동에 존재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낡은 사고방식들로 인해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 역시 낮아져 있습니다.

### 홍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는 시민행동이 맞닥뜨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해보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과거와 현재의 위치를 진솔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소통과 책임,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 보고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백서나 연차보고서가 아니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G3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3천개 이상의 기업과 정부기관, 비영리조직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보고 기준입니다. 스스로의 기준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하는 시각으로 시민행동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소통과 책임**

지속가능보고서는 단순히 자료를 담는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행동을 지켜보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기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시민행동은 매년 이 보고서를 내면서 매년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시민행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얼마나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 **Special Thanks to**

이 보고서는 시민행동 임원들과 스태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2개월간의 인턴 기간동안 보고서의 기본 자료를 정리해주신 김류원 님(고려대 경영학과 석사과정), 보고서에 대해 귀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이원재 님(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환경 분야의 보고 내용을 검토해주신 박용신 님(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인쇄비를 후원해 주시고 직접 인쇄를 맡아주신 허광봉 님(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0년간 한결같이 시민행동을 지켜주신 1,016명의 회원들과 꾸준히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애정과 정성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보고서를 드립니다.

2009년 9월

**지현 운영진 박현권**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일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소개합니다 | About CAN

### 설립목적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익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예산감시운동 | 정보인권운동 | 기업감시운동 | 대안생활운동

### 단체개요

명칭	함께하는 시민행동 (약칭: 시민행동) Citizens Action Network (abbr: CAN)
창립일	1999년 9월 9일
구성원	회원: 1,016명   운영위원: 24명   상근활동가: 13명
공동대표	지현 조계중 제16교구 청량사 주지   운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감사	김영모 김영모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승만 신성회계법인 감사본부 공인회계사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상임)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소재지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함께하는 시민행동  
연락처 대표전화 02-921-4709 팩스 02-3144-4709 전자메일 [action@action.or.kr](mailto:action@action.or.kr) 홈페이지 <http://action.or.kr>

걸어온 길 \_하단에 계속 이어집니다.

1999년

-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푸른방패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들> 출간
- 국내 최초의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개최
-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공격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년

- 창립총회 개최
- 전국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
-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한국 최초의 납세자소송)
-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운동
- 안티닉스 운동
- 종로구 가회동으로 사무실 이전

## 비전, 미션, 핵심가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비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 핵심가치** 자율, 자치, 책임, 투명, 인권, 조화, 공정

## 운영원칙

창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	인권 존중	반부패	정치적 중립
모든 참여자는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토론을 통한 합의와 합의를 통한 공동 책임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정 정보, 운영위원회 회의,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회원의 회비와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립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시민행동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민행동의 모든 활동은 인권 존중 기반에서 이뤄지도록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의 자산을 횡령, 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는 회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며,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갑니다. (비당파성)

### 2001년

판례정보제공 88개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조사  
 정보사회의제만들기 10회 연속 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 및 발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운동 시작  
 기업의 극과극 보고서 발표 시작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성북구 삼선동으로 사무실 이전 (시민공간 여울)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 2002년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디렉토리 서비스  
 참여예산조례(지방정부 예산편성예의 주민참여제도) 제정운동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모니터링 사업  
 광주은행 BW행사가격 인상 피해 집단소송 진행  
 장애인 고용의 극과 극 기업 발표  
 대선 유권자 프로그램 <메신저 액티비스트> 운영

## 재정 및 자산 현황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당시부터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회비를 통한 재정자립을 목표로 조금씩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회원 및 후원인의 기부금이 전체 재정규모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2%는 공익재단 등의 프로그램 진행 지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단체운동을 위해 꼭 필요한 100%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해 시민행동은 회원확대와 모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구성원 현황

회원	1,016명
임원	공동대표 3명, 운영위원 24명, 감사 2명, 고문 2명
상근활동가	13명
인턴	4명
자원활동가	38명 (2009년 1월 - 8월)

## 조직 구조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회,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회 및 4개 영역별 위원회가 13명의 상근활동가와 인턴,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진 사무처와 협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03년

- 시민행동 커뮤니티 에피소드 오픈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조사
-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조사
-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발표
- 광고감시운동 -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 빈곤층에 대한 한전의 강제 단전단수조치 중단 캠페인

### 2004년

- 국회개혁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경향신문 공동기획 - 국가예산 대해부
- 디지털 정보의 보전을 위한 정보트러스트운동
- 우리 사회의 비전을 모색하는 '포럼 여울' 운영
- 인터넷선거법 관련 대응 -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 연속 워크숍
- 국내 최초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에 의견서 전달
- 세계일보 공동기획 - 17대 총선 [바로 알고 바로 찍자] 캠페인
- 후원모임 서각과 대금의 만남 展

## 의사결정구조

시민행동의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실사구시의 창립정신을 살려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의사결정의 핵심은 민주성과 책임성입니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전문가와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반 회원과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책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일반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후 운영위원회 구성시 일반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고의결기구로 그 구성원은 회원 전원입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됩니다.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회원 1/5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상설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시민행동 규약에 의해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 실·국장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사무처** 사무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무그룹으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됩니다. 예산감시국, 경보인권국, 좋은기업만들기국, 기획·정책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회원총회 의결사항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고문, 대표 및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추천
2. 각 위원회 및 기구 설치 및 위원장 및 실무책임자 승인
3. 총회의 소집 요구
4. 기타 중요 사항

## 주요활동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추구합니다. 밀빠진독상을 필두로 한 예산감시운동, 프라이버시와 의사소통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인권운동,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좋은기업만들기 운동과 같은 새로운 운동 영역을 발굴하고 키워왔습니다. 또한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원 총회, 이메일 뉴스레터 마이캔,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월드넷, 커뮤니티 에피소드 등으로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운동방식을 실험하고, 시민운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축적·제공하고 있습니다.

## 액션 action

- |                                |   |
|--------------------------------|---|
| <b>예산감시운동</b><br>1999 - 현재     | 나라살림,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 버리기도 합니다. 예산감시운동은 시민의 눈으로 이런 구멍을 막고 고쳐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
| <b>정보인권운동</b><br>1999 - 현재     | 정보화시대,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할 정보소통환경이 상업화를 넘어 독점화, 권력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운동은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정보소통권리 확장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운동입니다. |
| <b>좋은기업만들기운동</b><br>1999 - 현재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사후처리 과정에서 경제/사회/환경 등 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기업만들기운동은 경제 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
| <b>대안생활운동</b><br>2005 - 현재     | 누구나 평범하고 작지만 자신과 세상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대안생활운동은 이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운동입니다.        |
| <b>인터넷 시민학교</b><br>2000 - 2005 |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온라인 학교입니다. 웹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유권자, 납세자,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성찰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활동해오다 2005년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
| <b>공익소송센터</b><br>2000 - 2002   |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익기획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적 상담과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

### 2005년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심포지엄  
50개 예산낭비 우려사업 선정 및 발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 구성  
지역비전만들기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주민참여가이드북> (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발간  
빅브라더 보고서 <사이월드와 프라이버시> 발표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모니터링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시작 - 퀵서비스 기사, 수도검침원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3회 연속 워크숍  
연속토론회 <헌법 다시보기> 개최

### 2006년

“내가 먼저 대안이 되자” 대안생활캠페인 시작  
포털이용자운동 - 포털이용자100인위원회 출범  
정보인권지수 개발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지역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 (대형마트)  
금융의 사회적 책임 운동 (휴먼계좌의 공적활용)  
난민인정절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 인프라 infra

<b>월드넷</b>	국내 외 시민단체의 기본 정보와 활동 사례를 모으는 세계시민단체 백과사전입니다. 1999 - 현재
<b>번역으로세상바꾸기</b>	번역으로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활동가 모임입니다. 2003 - 현재
<b>커뮤니티 에피소드</b>	일상의 소회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의제까지 담아내는 시민들의 커뮤니티입니다. 2003 - 현재
<b>액션툴즈</b>	시민운동가의 인터넷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 - 현재

## 네트워크 network

<b>예산감시 네트워크</b>	2000년 3월, 전국의 예산감시 관련 단체가 모여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2000 - 현재
<b>마웅저와 함께</b>	버마 민주화 운동가인 마웅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블로그입니다. 2004 - 현재
<b>아시아 인권공동체 이니셔티브</b>	아시아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영문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03 - 현재

### 2007년

참여예산제도 도입 촉구운동  
 납세자(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참여예산제도 소개 DVD 제작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공동기획 - 지속가능 기업으로 가는 길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활동  
 피스라디오 캠페인

### 2008년

서울신문 공동기획 -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  
 방송통신위 삭제요청 게시물 사례 분석  
 동아시아 기업의 CSR 성과 비교 연구 프로젝트  
 MB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분기별)  
 버마민주화운동가 8인 난민인정불허결정 처분취소소송 승소  
 풀뿌리 모금 시상식 수상 (피스라디오 캠페인)  
 시민공간 나루 건립 및 모금 (공감여행 콘서트, 서화전시회)  
 다음 희망모금 - 티베트 평화운동 지원 모금 캠페인  
 마포구 성산동으로 사무실 이전 (시민공간 나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해관계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후원인), 일반시민, 시민단체, 공익재단, 내부구성원(임원, 상근활동가, 인턴, 자원활동가),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을 시민행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회원 (후원인)** 회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존립 기반입니다.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은 시민행동 활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또한 회원은 회원총회의 구성원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 내부 구성원** 임원, 상근활동가, 인턴, 자원활동가 등 내부구성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실질적인 운영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더불어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 일반시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의 권리 확대와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일련의 성과는 일반 시민의 권익 증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공익재단** 공익재단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응모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하게 아름다운 재단과 다음세대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과 '대안생활백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업**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입니다. 프라이버시 이슈, 정보인권 이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슈, 노동인권 이슈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등의 예산감시활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언론**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다양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의 목소리가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하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만큼, 언론은 시민행동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시민행동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민행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회원(후원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원(후원인)과는 정기적으로 회원총회와 창립후원행사 개최, 정책협의회 참여, 뉴스레터 발송, 그리고 회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되며, 시민행동 임원 선출과 사업 보고·계획 및 재정 보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1회 가을에 열리며, 회원과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이때 회원의 참여 속에 반기별로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원 뉴스레터는 매주 1회 지난 일주일간의 시민행동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회원 모임을 개최하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민행동에 대한 기대나 바람 등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에 개최하는 회원 총회 시에, 그리고 매년 가을에 열리는 창립 후원 행사 때에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회원의 안부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일반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일반시민과의 체계적인 소통 채널은 부족한 편입니다. 과거 예산낭비 제보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온라인상에서의 제보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도 일반 시민과의 주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시민행동 회원이 아닌 홈페이지 가입자에게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시민행동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의 활동이 미디어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 소통 채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동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와 모임 참여로 상시적인 소통을 합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무처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는 광우병대책국민회의, 광우병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 아름다운 예산만들기 네트워크, ISO26000 대응 NGO 모임, 사이버통제법 TF 모임 등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창립 당시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2008년-2009년에 각각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사무처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익재단과의 커뮤니케이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업비의 일부는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공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민행동 재정은 늘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응모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열악한 시민행동 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다음세대재단으로부터 ‘대안생활백서’ 운동에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고양, 안산, 수원 3개 지역의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지원받았습니다.)

### 내부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내부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 운영과 사업 진행, 근무조건 등 시민행동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활동가가 공유하며, 재직시 어떠한 이유로도 상근활동가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체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사무처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공유되고 논의됩니다. 전체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사무처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회의 결정으로 실국장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이 참석 대상이나, 운영위원이 아닌 상근활동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논의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운영위원 등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8년 규약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운영위원의 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임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격주로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과 자원활동가도 사무처 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운동의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과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참여, 그리고 공문에 의한 의견 전달 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논평·성명·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며,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활동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감시의 대상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참여, 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기타 논평과 성명,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도 중요한 의견 전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언론과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은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이슈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함께 공동기획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003년 시민방송 RTV와 함께 아시아 시민운동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동기획·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 2004년 세계일보와 함께 ‘17대 총선 기획’시리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경향신문과 함께 5개월여에 걸쳐 ‘예산대해부’ 시리즈를 24회 기획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미래를 여는 실천 - 대안생활백서’, 2007년에는 ‘지속가능 기업으로 가는 길’, 2008년에는 ‘아시아 기업 사회와 소통하다’의 주제로 한겨레신문과 공동 기획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수단
회원	마이컨 뉴스레터, 정기총회, 회원모임, 회비납부, 정기 행사, 설문조사
일반시민	미디어, 발간자료, 제보게시판, 민원접수, 제보전화개설, 시민의견조사
시민단체	연대사업, 연대회의, 상설연대기구
공익재단	지원사업 공모
상근자 / 임원	워크숍, 사무처 회의, 운영위원회, 교육과 면담, CUG, e-mail 정보공유 및 결재
기업	위원회 참여, 토론회, 간담회, 모니터링 및 의견전달
정부 / 지자체	위원회 참여, 토론회, 간담회, 모니터링 및 의견전달, 정보공개청구
언론	공식 보도자료, 토론회, 기자회견 등 각종행사

## 중요 이슈 선정 과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에 다양한 이해관계자(회원, 시민단체, 언론, 웹회원, 공익재단,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인 임원, 상근활동가, 인턴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그리고 사무처 회의 등을 통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

회원, 웹회원, 시민단체, 공익재단, 임원, 상근활동가, 인턴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설문지 : 이해관계자별 설문을 위한 웹페이지 개설

인터뷰 :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In-depth Interview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참가자

설문 / 인터뷰 참가자 : 회원 67명, 웹회원 30명, 공익재단 종사자 4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6명

###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p>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p>	<p>2007년 12월 정책협의회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획 논의 2008년 7월 상임운영위원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논의 2008년 8월 운영위원회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측면, 지표, 데이터 전반에 대한 논의 2009년 2월 정책협의회 : 재정, 회원, 운영위원, 상근활동가에 대한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논의</p>
<p>사무처 상근활동가</p>	<p>2008년 1월 : 전체 상근활동가 지속가능보고서와 GRI G3 가이드라인 교육과 학습 2008년 2월 : 사무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TFT 구성 2008년 6월 : GRI G3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성 모색 2008년 7월 : 내부 구성원으로서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중요 이슈 수집과 논의 2008년 12월 - 2009년 2월 : 내부 구성원으로서의 중요 이슈 정리 2009년 1월 - 2월 :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 이슈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진행 2009년 3월 - 4월 : 국내외 비영리 조직의 지속가능보고서 검토</p>

## 중요 이슈 선정 매트릭스

### 지속가능성을 위한 5가지 영역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 특성상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원과 사업(활동), 그리고 재정 측면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회원의 지속가능성 | 재정의 지속가능성 | 운영위원회의 지속가능성 |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영역별 중요 이슈 도출 매트릭스

시민행동은 5가지 영역에서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이슈를 대상으로 위험 측면, 성공 측면, 규제 측면, 그리고 섹터에서 중요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예)

영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독립재정	재정 투명성	재정 안정화	정부기업지원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위험요인인가	○	○	○	X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요인인가	○	○	○	X
다양한 규제(법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인가	X	○	X	X
시민단체 영역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이슈인가	○	○	○	△
중요이슈 선정 여부	○	○	○	X

### 중요 이슈에 대한 보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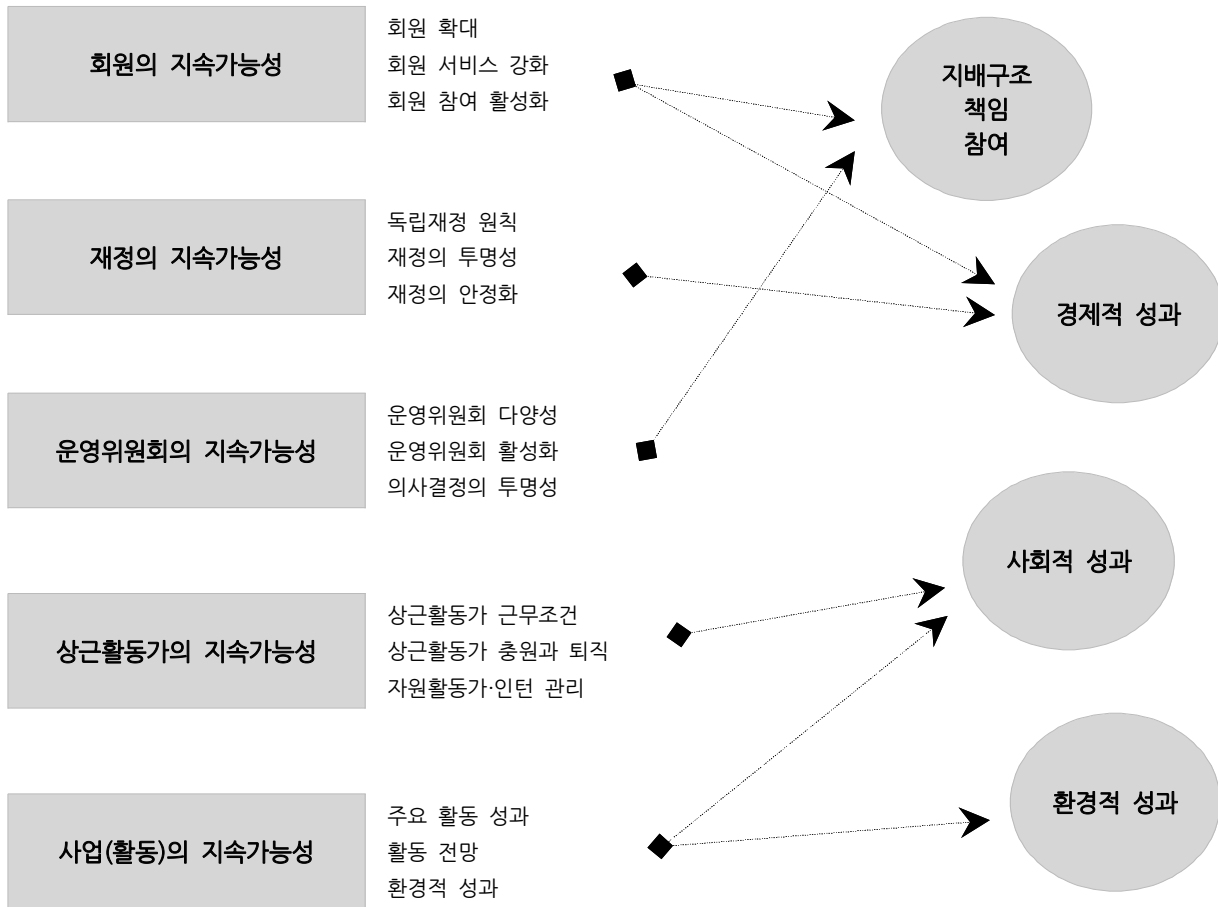
선정된 중요 이슈에 대한 보고서, 해당 이슈에 대한 내부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존재하는지, 정보 공개 차원에서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이슈는 아니더라도 시민행동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는 가감 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예)

선정된 중요 이슈	내부 관리와 전략	데이터 관리	담당부서	정보공개 필요성
독립 재정	원칙과 시스템 구비, 독립 재정 원칙 지속	모든 재정 정보 관리 및 공개	기획실	매우 중요

## 중요 이슈와 대응 방향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중요 이슈



**중요 이슈별 대응 방향**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출된 중요 이슈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중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회원의 지속가능성	회원 확대	가입 경로 다양화 사업(활동)을 통한 가입 유도
	회원 서비스 강화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회원 참여 활성화	총회 참석률 제고 회원 참여 이슈의 확대
재정의 지속가능성	독립 재정 원칙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립 구조
	재정 투명성	현행대로 매월 재정정보와 연간 운영성과표의 투명한 공개
	재정 안정화	회원 가입 확대 새로운 후원인 발굴
운영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운영위원의 다양성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시 일반 회원 참여 확대 정책협의회 회원 참여 유도
	운영위원회 활성화	상임운영위원회의 정상화
	의사결정의 투명성	현행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상근활동가 근무조건	재정 안정화를 통한 상근활동가의 생활 안정화
	상근활동가 충원과 퇴직	상근활동가의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적 활동 유인
	자원활동가, 인턴 관리	자원활동가와 인턴 모임 마련 자원활동과 인턴 종료 후 지속적인 관계 유지
사업(활동)의 지속가능성	주요 활동 성과	시민행동 활동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활동 전망	활동 기구별 전문화와 자립 구조
	환경적 성과	주요 자원(에너지, 물, 종이) 이용에 대한 관리와 개선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About Sustainability of CAN

1,000여명의 회원과 24명의 운영위원,  
그리고 13명의 상근활동가와 인턴·자원활동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시민행동의 밑거름, 1,016명의 회원 | 회원의 지속가능성

### 회원의 지속가능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1,01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 회원의 정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 시민행동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했으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사람

#### 가입과 탈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회비 또는 활동 참여를 약속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사무처에 연락하여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 처리가 됩니다. 회원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 권리와 의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다양한 활동과 운영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임원선출과 관련한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사항은 규약 제2장 회원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 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코드 40, 15%) 요청 시 상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요청과 상관없이 매년 초 모든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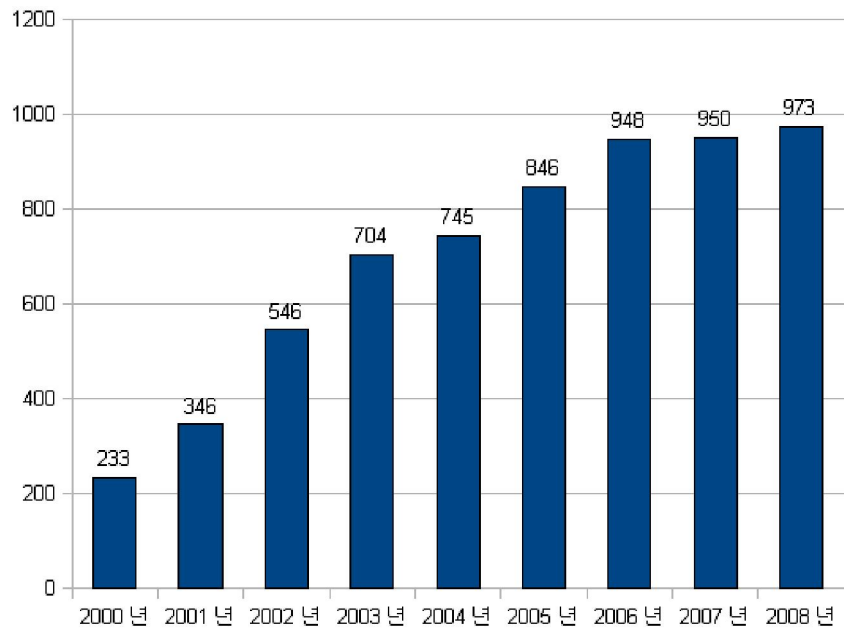
권리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무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회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존립 기반입니다.  
 회원들의 후원과 참여는 시민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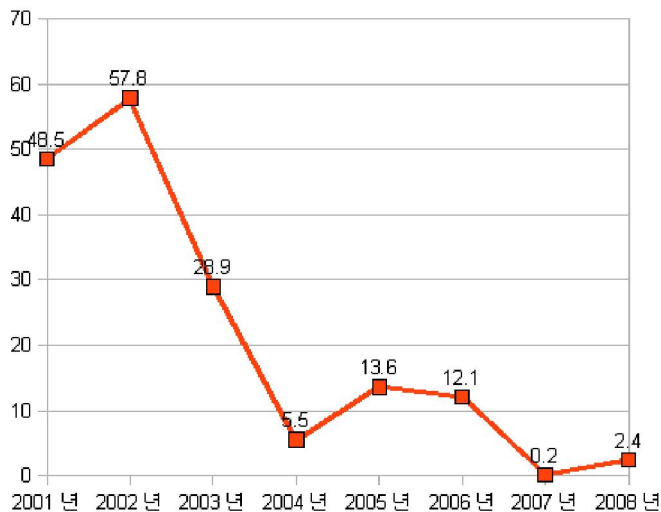
## 규모

### 회원 규모의 변화와 증감률

2009년 8월말 현재, 회원 수는 1,016명입니다. 2000년 말 233명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4년부터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년 대비 회원 증가율은 평균 21.13%로, 2004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은 전년 대비 각각 0.2%, 2.4%의 회원 증가율을 보여 회원 증가 속도가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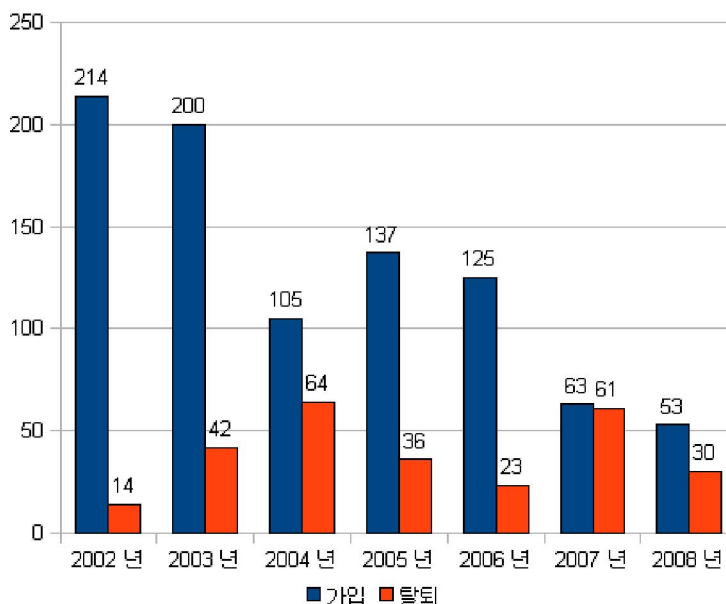
연도별 회원 변동 추이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전년대비 회원 증감률

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했으며, 적극적인 회원 유치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회원 모집 방식이 주로 임원과 상근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아, 이러한 회원 모집 방식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탈퇴 현황



연도별 회원 가입 및 탈퇴 현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14명, 200명, 105명, 137명, 125명의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여 높은 회원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50-60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여, 신규 가입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은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14명에서 64명 정도입니다. 2007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는 줄어든데 반해, 탈퇴자 수는 늘어 순증 회원 수가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신규 가입자		214	200	105	137	125	63	53	138
탈퇴자		14	42	64	36	23	61	30	30
순증 회원 수	113	200	158	41	101	102	2	23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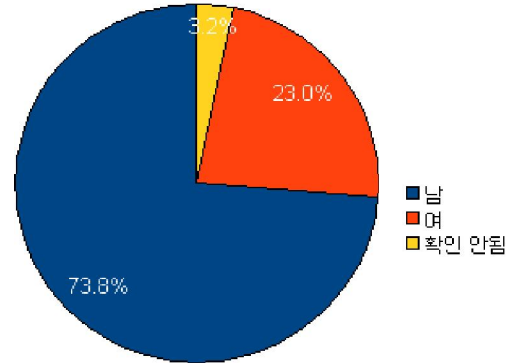
※ 2000년과 2001년 신규 가입자와 탈퇴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 순증 회원 수는 2001년말 총 회원 수에서 2000년말 총 회원 수를 뺀 것입니다.

## 회원 구성의 다양성

### 성별 분포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남성 회원의 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회원은 23%로 남성 회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과 비교하여 여성 회원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비율이 80 : 20 으로, 남성 회원 비율은 감소하고 여성 회원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인원	%
남	718	74
여	224	23
모름	31	3
계	9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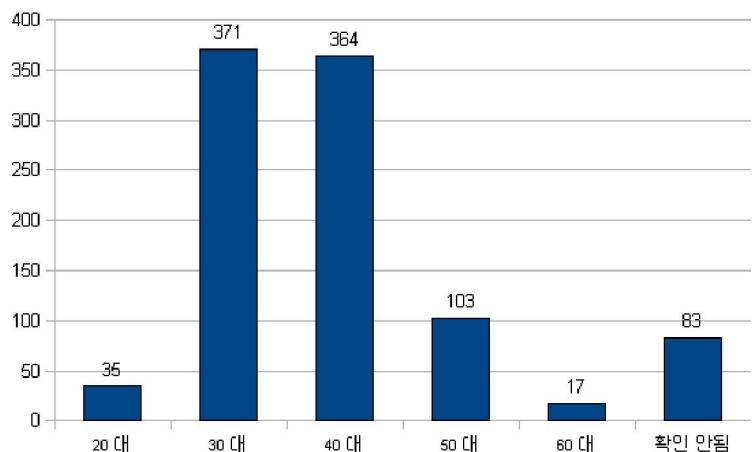


성별 분포

### 연령별 분포

연령별 회원 구성을 보면, 30대가 38.1%, 40대가 37.4%, 50대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이 30-40대입니다. 상대적으로 20대와 60대 이상의 회원은 매우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인원	%
20대	35	3.6
30대	371	38.1
40대	364	37.4
50대	103	10.6
60대	17	1.8
모름	83	8.5
계	9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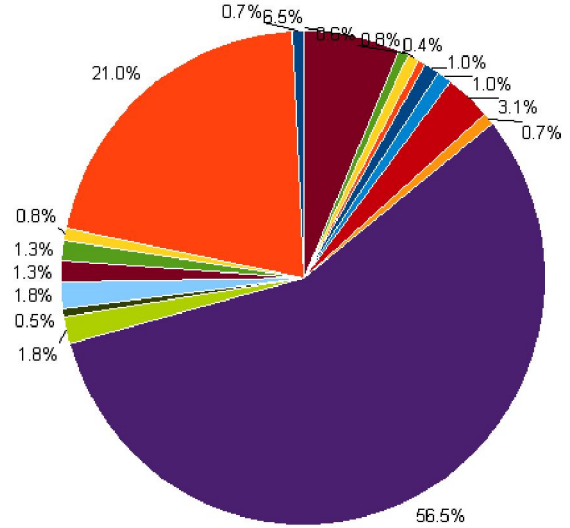
연령별 회원 분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 가입 시 CMS 출금을 위해 필요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이외에 기타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회원 분석 정보는 회원 가입 시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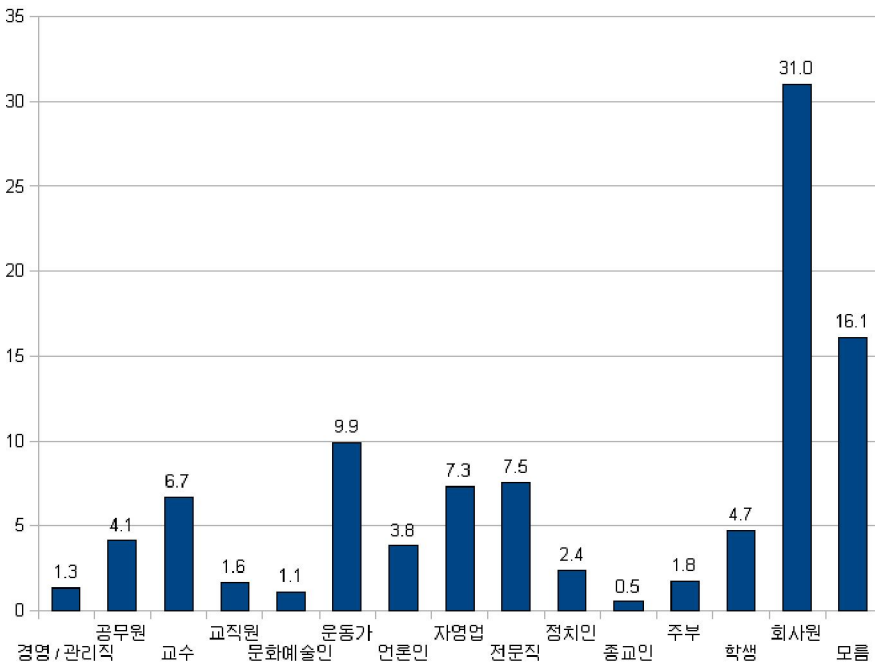
### 지역별 분포

회원의 지역별 분포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80.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회원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 거주자이며, 기타지역에는 0.4%~1.8%로 매우 적은 회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56.5%로 전체 회원의 절반을 넘었으며, 경기도에 21.0%, 인천에 3.1%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광주	기타
%	56.5	21.0	3.1	1.8	1.3	1.3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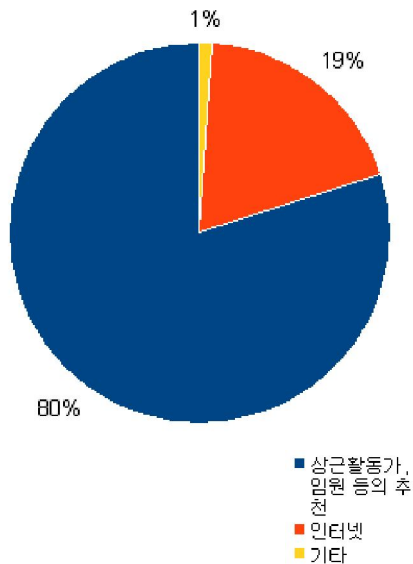
위 중앙에서 반시계방향으로:  
 강원, 경기(21.0%),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56.5%),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모름



### 직업별 분포

시민행동 회원의 31%는 회사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운동가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7.5%, 자영업자가 7.3%, 교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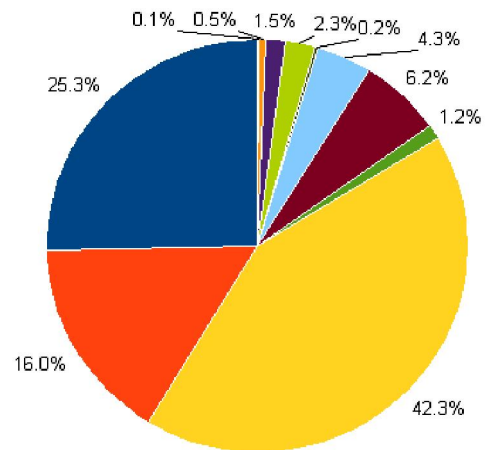
현재 회원의 80%는 임원, 상근활동가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혹은 전직 상근활동가와 인턴, 자원활동가 등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임원과 상근활동가가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상근활동가의 추천에 의한 가입이 약 68%로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기타 임원 추천이 6%, 회원 추천이 2% 정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자는 19%로, 2004년 9%와 비교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인원	%
상근활동가, 임원 등의 추천	784	80
인터넷	182	19
기타	7	1
계	973	100

### 월 회비와 납부 방법

#### 월 회비 금액 분포

전체 회원중 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회비를 내는 회원이 전체의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비 납부 제외 회원이 25.3%, 5천원 미만의 회비를 후원하는 회원이 16.0%입니다. 회비 납부 제외 회원은 일시적으로 회비를 중단한 보류 회원(164명)과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평생회원(43명),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했던 자원활동가와 인턴 등으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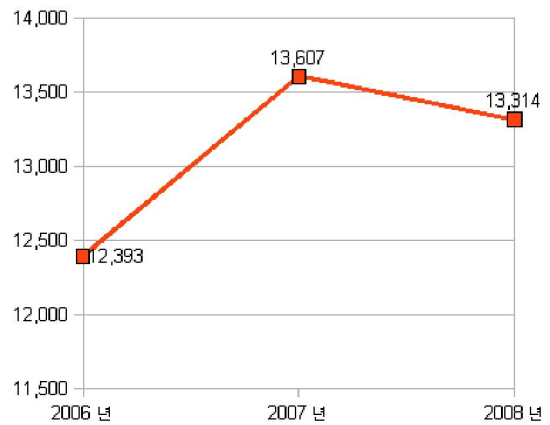


위 중앙에서 반시계방향으로:  
0(25.3%), ~5,000(16.0%), ~10,000(42.3%),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구분	0	~5,000	~10,000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100,000	~200,000	~300,000
인원	246	156	411	12	61	42	2	22	15	5	1
%	25.3	16.0	42.3	1.2	6.3	4.3	0.2	2.3	1.5	0.5	0.1



회원 1인당 평균 월 회비 액수는 2006년 12,393원에서 2007년 13,607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13,314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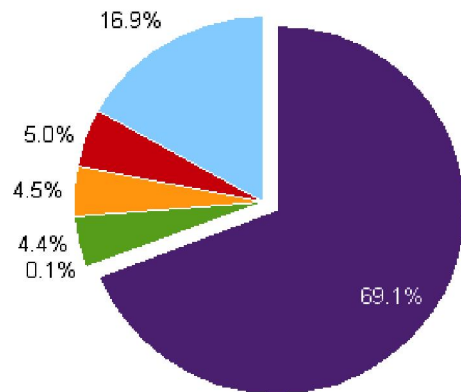


1인당 평균 월 회비

### 회비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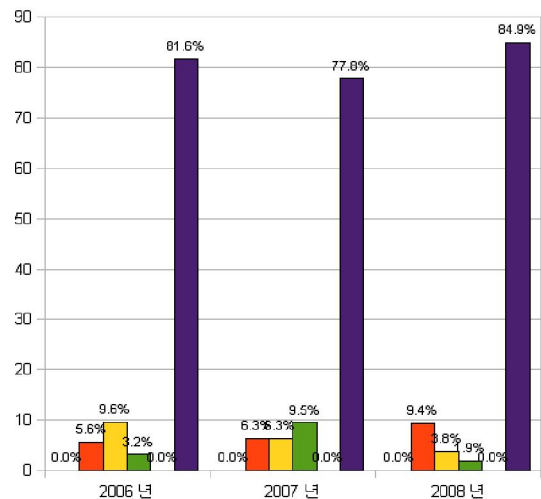
전체 회원의 약 70%는 CMS를 이용하여 월 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약정한 금액을 수시로 이체하는 회원이 5%,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이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회원은 164명으로, 전체 회원의 약 17%입니다.

구분	명	%
보류	164	16.9
수시	49	5.0
자동이체	44	4.5
평생	43	4.4
휴대폰	1	0.1
CMS	672	69.1
계	973	100.0



위 중앙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보류(16.9%), 수시, 자동이체, 평생, 휴대폰, CMS (69.1%)

최근 3년간 신규로 가입한 회원의 회비 납부 현황에서도 CMS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신규 가입자의 81%가 CMS를 이용하여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때 가입한 회원 중 회비 납부를 보류하는 회원도 없어서, CMS를 통해 안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왼쪽부터: 보류, 수시, 자동이체, 평생, 휴대폰, CMS

## 회원 참여 활동

###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시민행동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는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2000년 첫 번째 총회 이후, 2001년부터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4분기에 약 열흘간의 총회 기간 동안 안건이 웹상에 공개되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개진을 합니다. 회원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창립 후원 행사

회원총회와 마찬가지로 창립 후원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회원과 후원인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2002년까지 회원의 밤 성격이 강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후원의 밤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열리고 있습니다.

### 회원 공동 성명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시 처음으로 회원의 의견을 모아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메신저 액티비스트 활동으로 대선시기에 매일 메신저를 통해 그날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묻고 모아서 일일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용산 참사 논평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 논평도 회원의 의견을 모아 '시민행동 회원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회원 옴부즈만 제도 (내시경)

시민행동의 운영과 사업에 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6년 회원 총회 시에 운영위원의 제안으로 구성되었고, 약 1년간 운영되었습니다.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 옴부즈만 제도는 분기별 1회씩 모임을 갖고 시민행동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과 이의 반영 결과는 회원들에게 공개하였고, 활동 성과를 담은 옴부즈만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대화모임 이음 (異音)

이음(異音)은 다른 목소리, 다양한 소리, 그리고 서로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임으로, 시민행동의 활동 이외에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가지고 회원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향후 10년 내 일어날 이슈, 검색의 미래, 평택 대추리에 말걸기, 버마 이야기 등의 주제로 회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 캠페인과 모금 참여

시민행동의 활동중에서 회원과 일반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활동에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과 일반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페어라이프 캠페인(대안생활백서운동)과 피스라디오 캠페인은 비교적 회원의 참여가 활발했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버마 민주화운동을 위해 현지에 라디오를 보내자는 피스라디오 캠페인에 회원과 일반 시민의 모금 참여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생각과 실천을 모으는 페어라이프 캠페인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회원 의견과 기대사항 | 2009년 1-2월 설문조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매년 회원 총회와 창립 후원 행사에 맞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다소 부족하여 부정기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회원 이외에 홈페이지 가입 회원과 공익재단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도 공통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민행동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들었습니다.

### 조사 개요

기간 : 2009년 1월 - 2월

대상 : 회원, 웹회원, 관련기관 종사자(공익재단, 시민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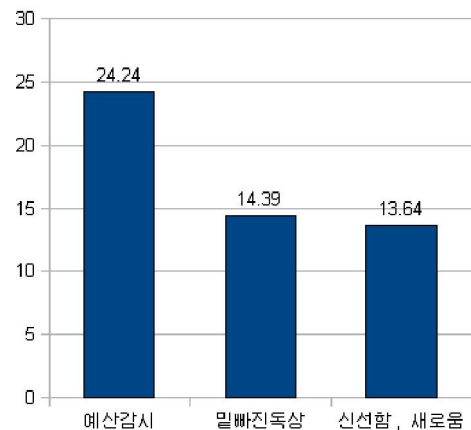
응답자 : 회원 67명, 웹 회원 30명, 관련기관 종사자 20명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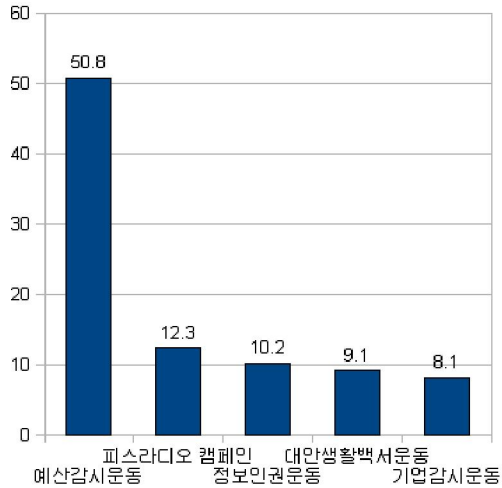
####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설문조사 응답자의 24.24%가 예산감시를, 그리고 14.39%는 밀빠진 독상을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산감시활동이 시민행동의 대표적인 사업이면서,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활동 내용보다는 시민행동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신선함, 새로움, 순수함, 유연함, 건전함, 좋음 등의 긍정적 이미지라고 답변한 비율이 13.64%로 나타났습니다. 불안함과 어려움 등 부정적 이미지라는 답변은 2.2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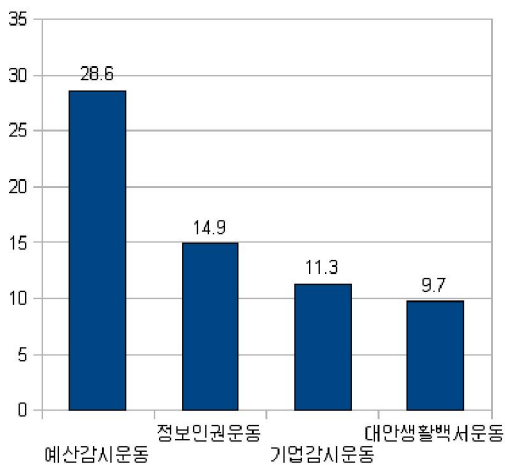


최근 2-3년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활동에 대한 선호도 (2009년 1월-2월 설문결과)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 역시 예산감시운동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50.8%가 예산감시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감시운동 중에서 밀빠진 독상이 27.3%로,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밀빠진 독상에 대한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 버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 현지에 라디오를 보내는 피스라디오 캠페인이 12.3%, 프라이버시 운동과 인터넷 실명제 대응, 포털이용자 운동 등의 정보인권운동이 10.2%, 착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생활백서운동이 9.1%,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CSR 운동을 하는 기업감시운동이 8.1%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에 대한 선호도 (2007년 8월-9월 회원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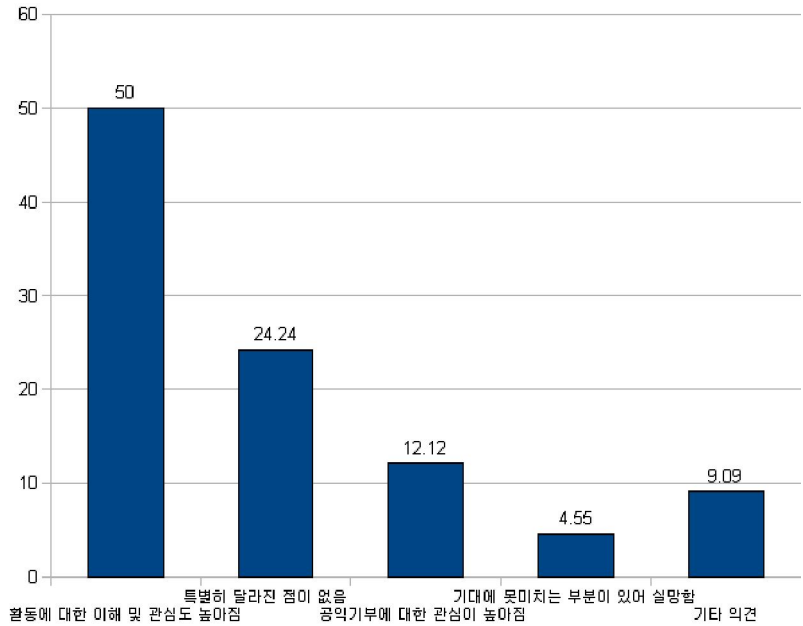
2007년 8월 - 9월에 회원을 대상(응답 회원 285명)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행동의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을 묻는 설문은 28.6%는 예산감시운동을, 정보인권운동은 14.9%, 기업감시운동은 11.3%, 대안생활백서운동은 9.7%로 나타났습니다. (피스라디오 캠페인은 2007년 말에 진행되어, 당시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회원을 포함한 시민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성과 측면에서나 관심도 측면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행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감시활동이 여타 활동에 비해 창립 초기부터 밀빠진 독상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예산감시운동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내는 등의 활동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행동 회원 가입으로 특별히 영향 받거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함)**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가입으로 회원 스스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입니다. 응답자의 50%는 시민행동의 사업 내용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으며, 12.12%는 회비와 후원금 기부로 공익 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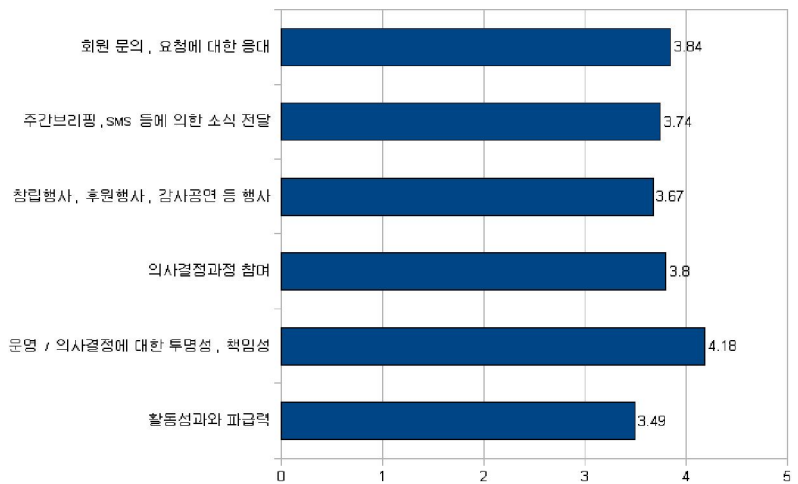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응답 비율이 62.12%인데 비해, 4.55%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24.2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원 만족도 (회원만을 대상으로 함)**

5점 척도로 회원의 시민행동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6개 항목으로, 모두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운영 및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점수는 4.1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창립 때부터 지켜 온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조직운영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모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정 현황도 매월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회원의 요청과 응대에 대한 만족도가 3.8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3.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시민 행동 소식 전달이 3.74, 각종 행사가 3.67을 보였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비교적 높은 3.8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오프라인 총회로 대의원제에 의한 총회 방식을 채택한데 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때부터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총회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시민행동의 활동 성과와 파급력으로 보통 이상인 3.49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의 설문 내용 중 시민행동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였다는 답변도 있어, 시민행동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실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회원의 기대와 바람

설문조사에서 회원의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사업 영역과 활동 방식, 그리고 재정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혹은 시민과 밀접한 이슈를 발굴하여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현재 시민행동의 사업이 회원 혹은 일반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활동에 회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것입니다. 회원이 쉽게 접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여러 영역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업을 정교하게 수립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각 사업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방식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회원들도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 간축, 문화예술인과 함께 공연기획으로 모금 전개, 재정규모에 맞는 운영구조 편성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 증대를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을 증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수익의 확대, 프로젝트 참여, 수익사업 전개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화는 회원을 포함한 임원, 상근활동가 모두가 걱정하는 오랜 과제입니다. 회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행동 재정원칙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정원칙은 자립과 투명공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원칙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자립과 독립성,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립

자립은 회원의 회비와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자립하는 것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원칙입니다. 2008년까지 연간 재정 결산보고에 따르면 매년 수입 중 회비와 후원금 비율이 평균 약 7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출 중 인건비 총액과 경상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공익기금 프로젝트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비 총액을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적정규모

무조건적인 재정확대나 회원확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하면 독립을 추진하거나 네트워크 체계로 분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거대 조직이 되기보다는 간결하고 변화에 유연한 단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창립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어온 사무처 인건비, 경상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재정의 기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 공정성과 독립성

일부 민간재단 등 공익기금의 사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기업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비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사업비와 보조금 뿐 아니라 후원금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국가재정과 사회공헌을 위해 조성되는 기업의 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오히려 건강하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행동은 만에 하나 이러한 기금에 연연해 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고유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창립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이런 원칙을 마련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 투명공개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정기적인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http://info.action.or.kr>)

연례보고 :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매년 회원총회를 통해 채택,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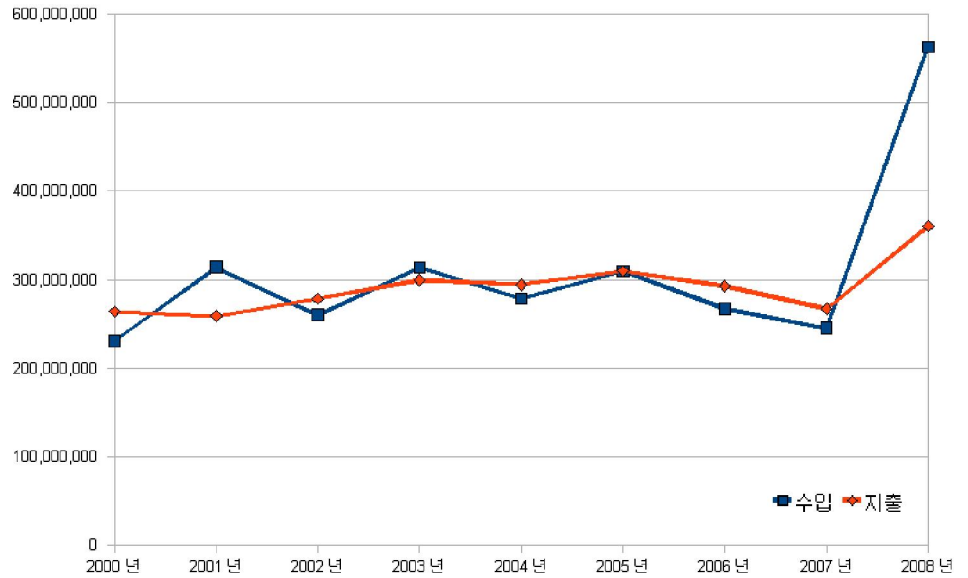
월례보고 : 현금수지표 (매월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사업비용표 (사업단위별 지출내역을 보여줍니다.)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공모-단체협력 사업 수행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보아 연구사업과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무처 논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만큼, 독립 재정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협력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되었고, 2003년 이후 인권위에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2003년 당시 지원내역은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연구비 2천4백만원] 빅브라더보고서 3편 발간 [인쇄비 2백6십4만원, 우편료 3십만2천1백원], 감시사회와 그 적들 [외부 집필자 원고료 2백 7만원, 인쇄비 1백5십4만원], 우편료 2십만 5천원] 발간이었으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1백5십6만7천9백원(미제출 원고료, 인쇄비 감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보고 시 반납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6백7십5만7천1백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

회원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	230,625	314,036	260,329	313,473	278,413	309,721	267,048	245,271	562,640
지출	263,782	258,764	278,496	299,452	294,391	309,588	292,694	267,255	360,661

(단위:천원)

### 2008년 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에 대한 설명

2008년도 수입과 지출이 다른 해와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초부터 피스라디오 캠페인, 티베트 후원 모금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부분이 늘었습니다. 14,153,023원의 캠페인 모금액 중 티베트 후원 모금으로 모인 10,100,569원은 티베트평화연대에 전달 하였으며, 4,052,454원은 피스 라디오 캠페인의 라디오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5월 공감여행콘서트, 6월 서화전시회, 10월 이사로 이어진 시민공간 나루 건립과 사무실 이전 프로젝트로 수입과 지출 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86,612,530원의 총 후원금 중 58,247,000원은 나루 건립을 위해 4개 단체가 서화전시회를 통해 공동 모금한 후원금입니다. 서화전시회로 얻은 후원금은 나루 건립을 위한 공동기금에 전액 출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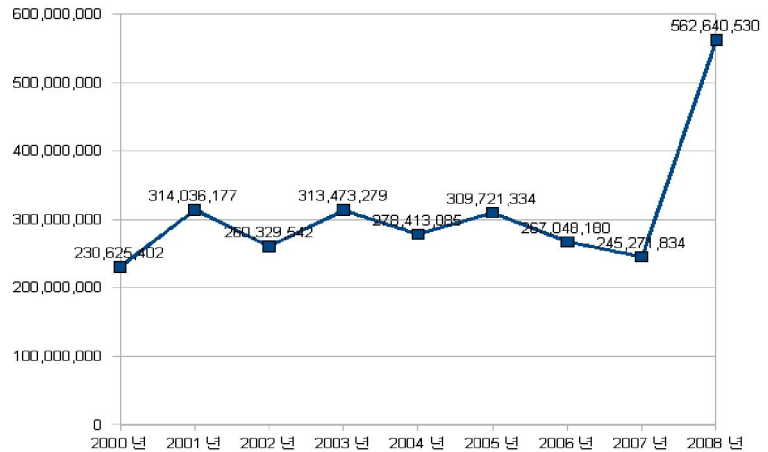
셋째,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사무실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시민공간 여울 매각으로 205,344,034원의 사업 외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2009년에 시민공간 나루 건립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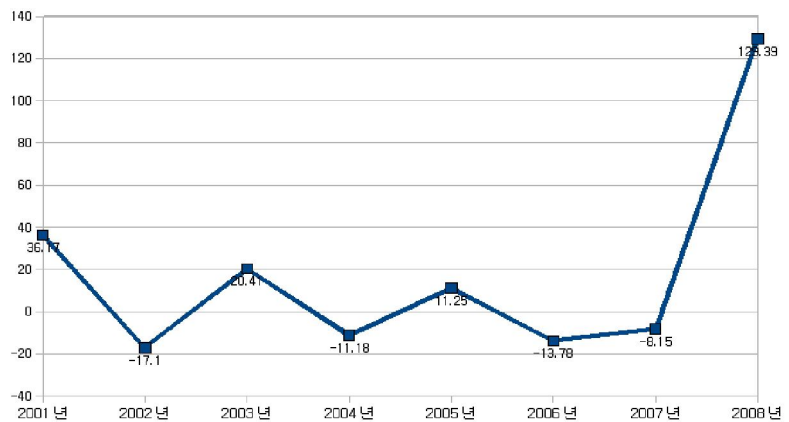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2008년을 제외하고 2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 내외의 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총수입이 매우 높아 연간 평균 총수입은 3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2008년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피스라디오 캠페인과 티베트 후원 모금 등 모금 캠페인과 시민공간 나무로 이전을 위한 후원 행사와 건물 매각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캠페인으로 모금한 수익은 각각 티베트평화연대에 전달되고 피스라디오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민공간 여울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2009년 시민공간 나무 건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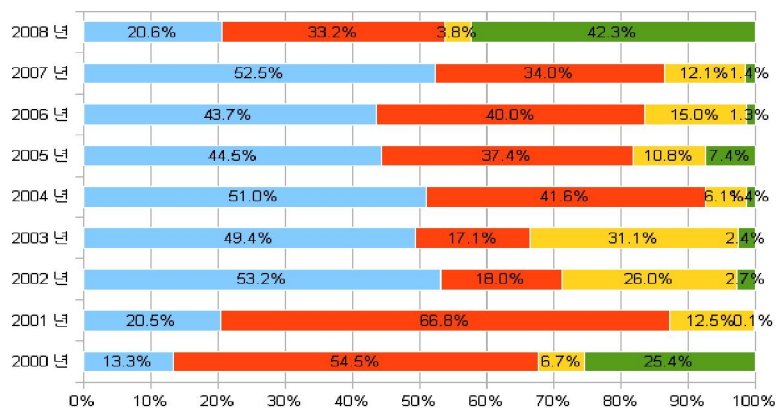
### 전년대비 총수입 증감률

전년대비 총수입 증감율을 보면, 2008년 증감율로 인해 평균 18.38%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인 2008년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증감율이 2.52%로 총수입 증가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2008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대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연도별 총수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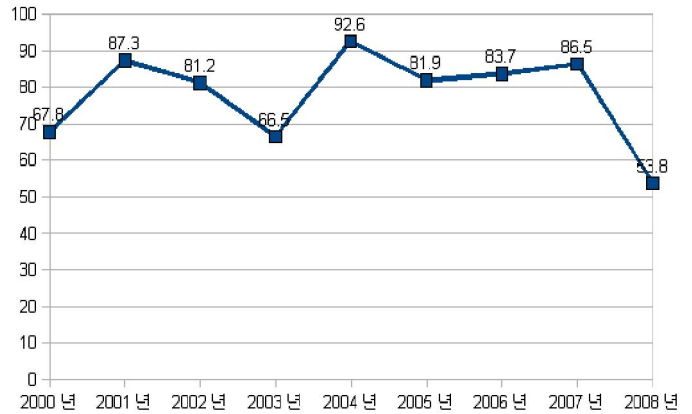
연도별 총수입 분포를 보면, 회비 수입과 후원금 수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회비 수입이 13% ~ 53%를, 후원금 수입이 17% ~ 67%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비 수입이 39%, 후원금 수입이 38%, 사업수입이 14%, 기타 수입이 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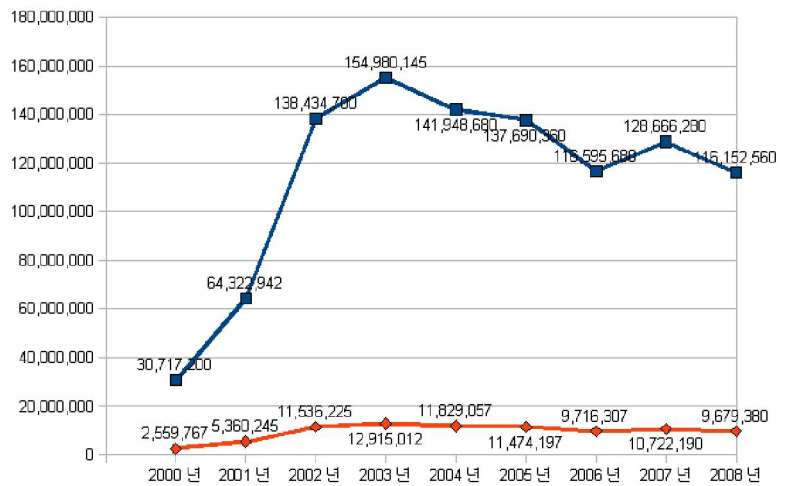
**총수입 중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비중**

총수입 중 회원과 회비의 후원금이 2003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70% - 90%에 육박합니다. 2003년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2008년의 경우, 시민공간 여울 건물 처분에 의한 수입 증가로 기타 수입이 25%를 차지하여 회비와 후원금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비중은 평균 78%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회비 수입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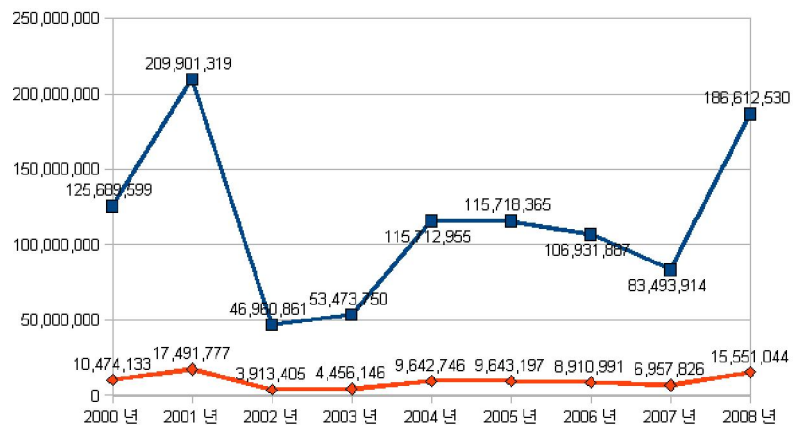
2003년을 기점으로 회비 수입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 회비 수입도 2003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08년 약 970만 원 정도로 감소하여, 회비 수입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연간회비총액 (아래) 월간평균회비총액

**연도별 후원금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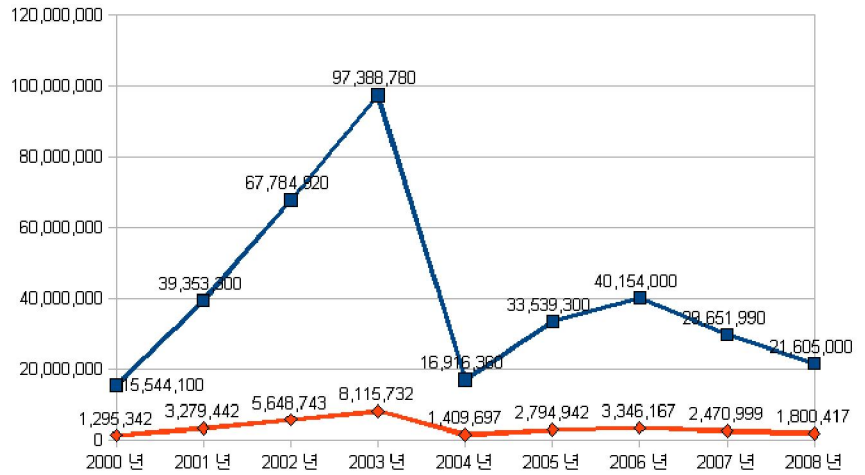
2001년과 2008년의 후원금 수입이 매우 높은 이유는 사무실 이전 마련을 위한 후원모금 때문입니다. 2001년에 환경정의와 함께 성북구 삼선동으로 이전을 위해, 2008년에는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후원금 모금이 높아졌습니다.



(위) 연간후원금총액 (아래) 월간평균후원금

### 연도별 사업 수입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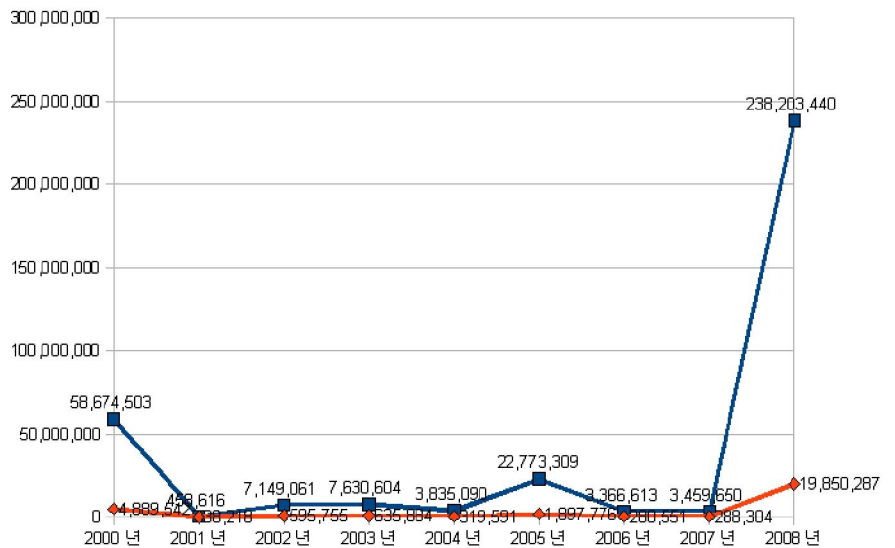
다른 해와 비교하여 2002년과 2003년의 사업 수입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수입 때문입니다. 2002년에 전자정부 모니터링 사업과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사업에 대해 정보문화운동협의회로부터, 두꺼비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운동지원기금으로부터, 인터넷 시민학교 강좌에 대해 아데나워 재단으로부터, 그리고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구축에 대해 다음세대재단으로부터 각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공모 및 단체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금융기관과 인터넷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파일 실태조사, 공공기관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조사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운동지원기금으로부터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아데나워 재단의 사업비 지원으로 인터넷 시민학교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2002년과 2003년에 프로젝트 사업 수입이 매우 높았습니다.



(위) 연간사업수입 (아래) 월간평균사업수입

### 연도별 기타 수입 변동 추이

회비 수입, 후원금 수입, 사업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이 2000년과 2008년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는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상근활동가 채용으로 지원받은 채용장려금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로구 가회동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독교연합회관 보증금으로 기타 수입이 높았습니다. 2008년에는 성북구 삼선동의 시민공간 여울 건물을 매각으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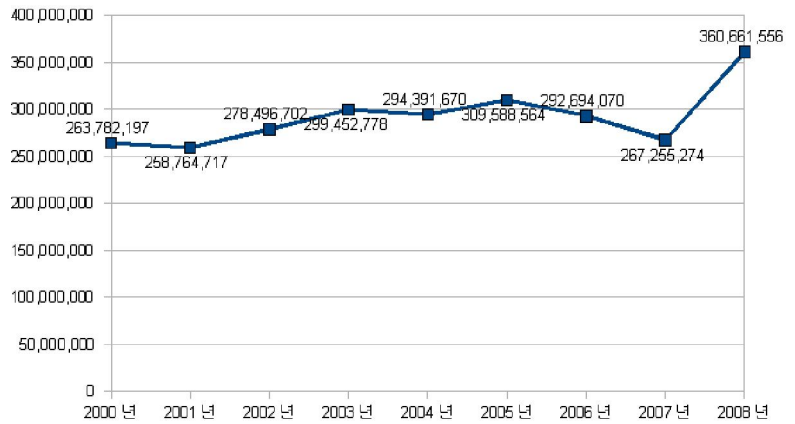


(위) 연간기타수입 (아래) 월간평균기타수입

##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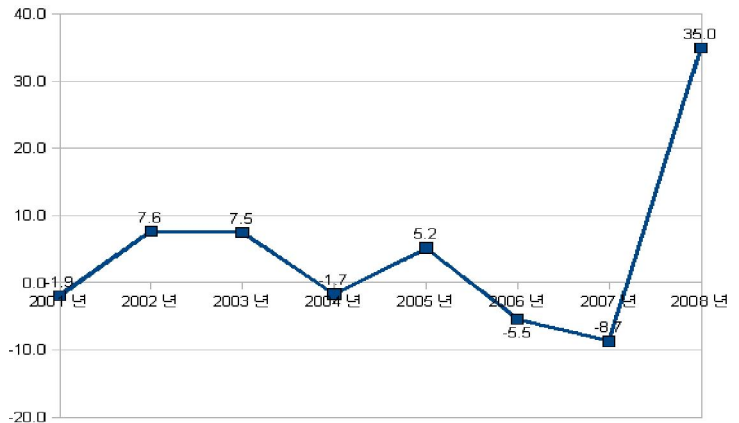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2008년을 제외하고 한해 평균 총지출 규모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 총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약 3억원의 지출 규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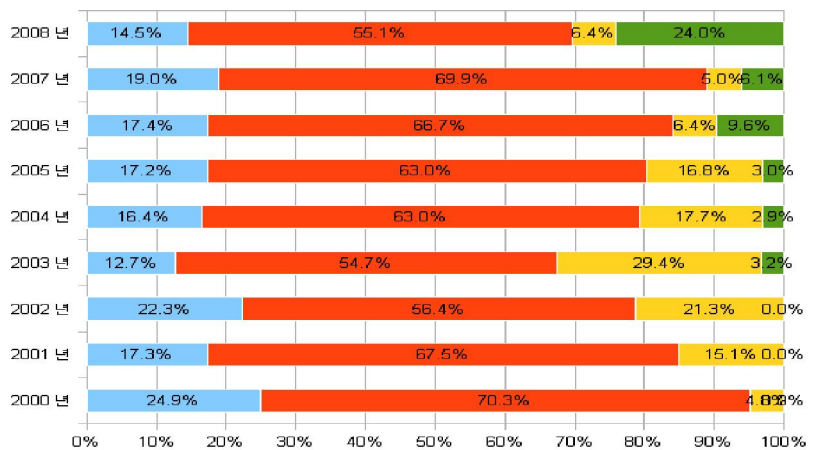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감률

특별했던 2008년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총지출 연평균 증감율은 0.37%로 지출의 증감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2008년 제외시 2006년과 2007년 모두 전년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총수입도 마찬가지로, 2006년과 2007년에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마이너스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연속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 규모가 축소하는 상황으로, 활동에 맞는 재정규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연도별 총지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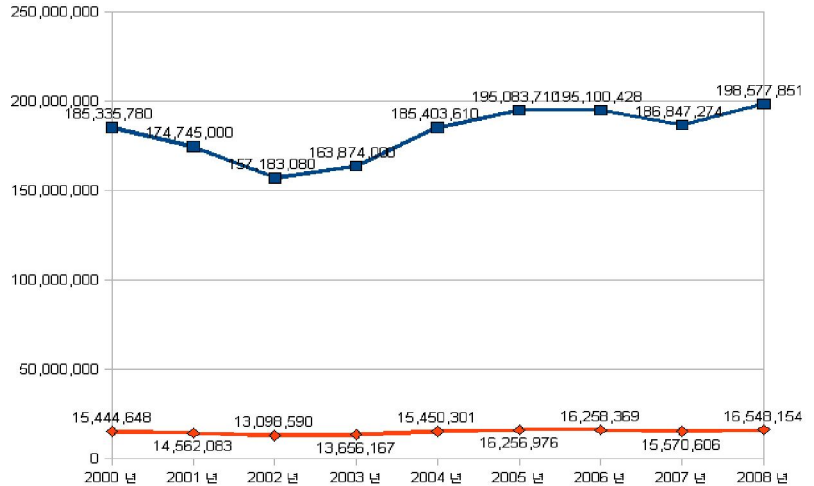
총지출의 분포를 보면, 평균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63%, 운영비 지출이 18%, 사업비 지출이 14%, 기타 지출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매년 지출의 약 55%~70% 내외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민행동의 활동 방식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 진행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상근활동가 중심의 조사와 분석, 보고서 발표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월별 재정보고에 사업비용표를 신설해 구체적인 사업별 활동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 연도별 인건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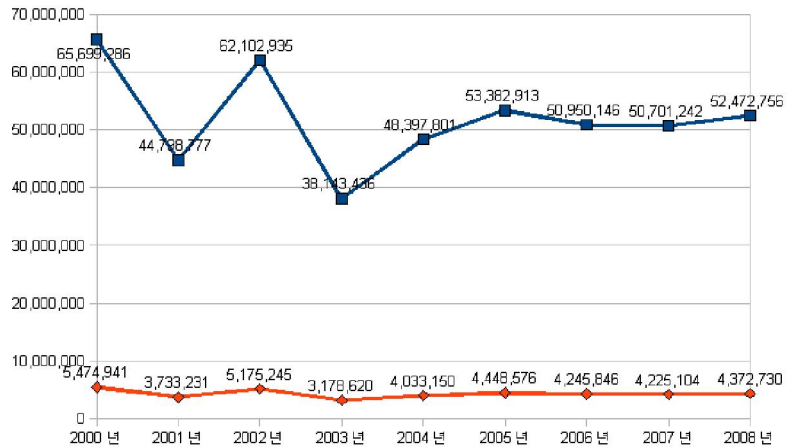
인건비는 상근활동가 급여와 퇴직급여를 합계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억 8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연간 약 1,217만원, 월간 약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연간인건비총액 (아래) 월간평균인건비

### 연도별 운영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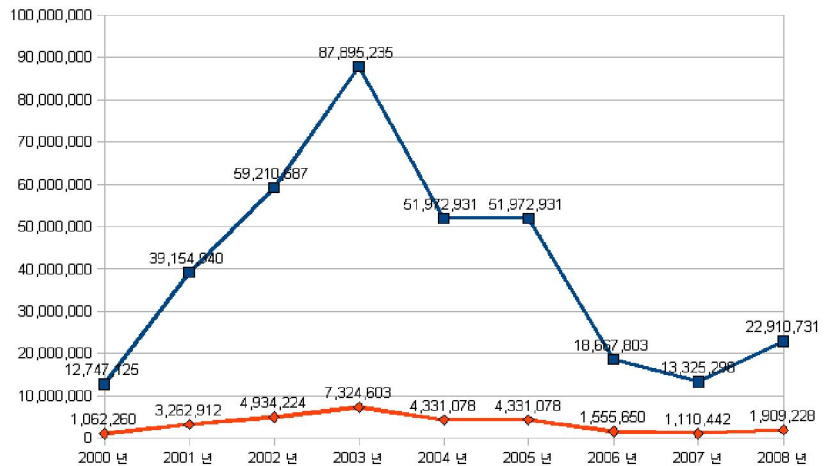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통신비, 건물관리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평균 약 5,1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과 2002년 운영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2000년의 경우 1년분의 건물임대료(3,442만원)로 인해, 2002년의 경우 사무실 이전에 따라 수리 등을 위해 건물관리비(1,113만원)에 지출된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위) 연간운영비총액 (아래) 월간평균운영비

### 연도별 사업비 지출 추이

사업비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단 등 프로젝트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매우 높은 것은 재단 등의 프로젝트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약 4천여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위) 연간사업비총액 (아래) 월간평균사업비

## 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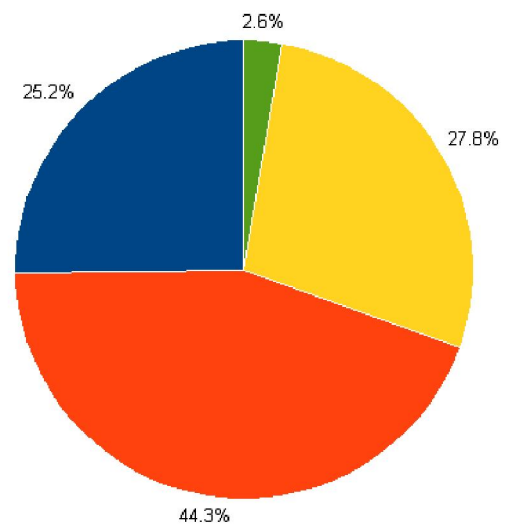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독립재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재정원칙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과 어려워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간히 제기되는 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과 사회공헌을 위해 조성된 기업의 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는 단체로서 정부와 기업의 재정에 의존할 경우 고유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에 조사한 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포함한 115명의 설문문에 의하면, 44.3%는 경우에 따라 유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27.8%는 재정원칙의 변경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반대로 25.2%는 지금과 같은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회원 확대에 힘을 쏟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조직과 구성원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중앙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현행유지, 경우에 따라 유연성 확보(44.3%), 재정원칙 변경, 무응답

현행유지	경우에 따라 유연성 확보	재정원칙 변경	무응답
25.2%	44.3%	27.8%	2.6%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권리와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대표, 선출직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처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와 기구의 설치, 그리고 위원장과 실무책임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2007년까지 매월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8년 회원 총회의 규약 개정에 따라 연 4회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정기 운영위원회가 축소되는 대신, 운영위원회 내에 상임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의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4명의 운영위원 중 상근활동가 운영위원을 제외한 18명의 운영위원들을 4-5명씩 구성하여 반기 단위로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격주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임운영위원회가 도입 초기와 달리 개최 실적이 미흡하고 운영이 부진하여, 애초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b>임원</b>	대표와 운영위원, 감사, 고문 등 임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후 회원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역할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 또는 추대됩니다. 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급여를 받지 않으며, 규약에 따라 정당의 직을 맡거나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는 조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b>공동대표</b>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고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현재 3명의 공동대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b>고문</b>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시민행동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해 자문과 지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규약 상 5인 이하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추대됩니다. 현재 시민행동 전 대표를 역임했던 2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감사</b>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상을 두며, 시민행동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현재 1명의 공인회계사와 1명의 변호사가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운영위원</b>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시민행동 규약에 의해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의 실·국장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5기 운영위원(임기 2008-2009년)이 활동 중입니다.

3명의 공동 대표, 2명의 고문, 2명의 감사, 그리고 24명의 운영위원  
 임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기여가 지금의 시민행동을 만들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 운영위원 선임

당연직 운영위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각 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 실·국장 등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됩니다. 통상적으로 선출직 운영위원은 일정 기간 각 활동 기구에 참여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거친 이후에, 시민행동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승낙으로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재 선출직 운영위원 대부분은 각 활동 기구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이후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5기 운영위원 프로필 (2009년 8월말 현재, 총 24명)

이름	자격	경력 / 직책	분야
강장목	선출직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인터넷 문화, 웹
구정화	선출직	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청소년 교육
김경복	선출직	공인회계사, 일신회계법인, 前 시민행동 감사	예산감시
김영수	선출직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참여예산
김영홍	당연직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은정	선출직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재정
김주일	당연직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노사관계
김태일	당연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감시위원장	재정, 행정
민경배	당연직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정보인권위원장	인터넷 문화
민병덕	선출직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법을 자문
신태중	당연직	시민행동 좋은기업국장	기업감시
신철호	선출직	(주) 포스닥 대표이사	조직운영
오관영	당연직	시민행동 사무처장	예산감시, 조직운영
유수훈	선출직	(주) D&A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회원, 비영리 조직 운영
이상근	선출직	공인회계사, 前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조세, 회계, 예산
이재원	선출직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재정
장상미	당연직	시민행동 기획실장	웹, 회원
전승우	선출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감시, 비영리마케팅
정선애	선출직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前 시민행동 정책실장	인권, 조직 운영
정란아	당연직	시민행동 정책실장	정책 담당
최인욱	당연직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예산감시
하승수	선출직	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	주민참여
하승창	선출직	前 시민행동 사무처장, 前 정책위원장	정책, 조직 운영
허광봉	선출직	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조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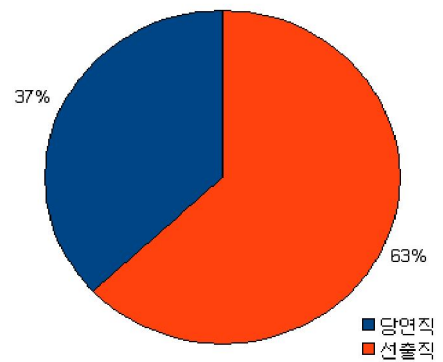
## 운영위원회의 다양성

### 선출직 운영위원 비율

규약에 의해 선임되는 당연직 운영위원은 총 9명이며,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운영위원은 15명으로 전체 운영위원의 62.5%입니다. 당연직 운영위원이 시민행동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반면에, 선출직 운영위원은 각 활동기구의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하나,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운영위원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을 뿐, 시민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출직 운영위원 상당수는 각 활동기구에 참여하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해 조언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으며, 선출직 운영위원 중 2명은 상근활동가로 근무한 적도 있어 시민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출직 운영위원은 활동에 대한 조언 이외에 시민행동과 어떠한 금전적·비금전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시민행동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시민단체의 의사결정구조가 기업과 다른 점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바를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며,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시민행동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바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선출직 운영위원이 시민행동과 관련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적절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 선출시 전문가와 운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반 회원 등의 참여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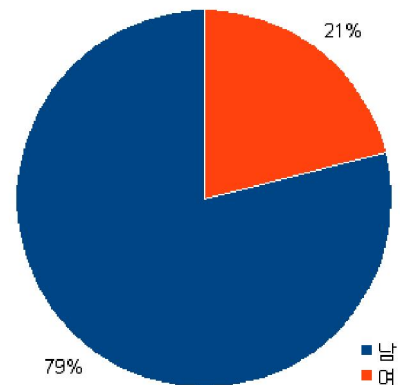


선임 방식에 따른 운영위원 비율

### 성별 분포

현재 운영위원 24명중 남자 운영위원이 19명, 여자 운영위원은 5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임원도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3인 모두 남성이며, 감사와 고문도 각각 2명씩 모두 남성입니다. 또한 각 활동기구의 대표 3인도 남성이 맡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 시, 여성 운영위원을 총회에 추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 시 보다 많은 여성 운영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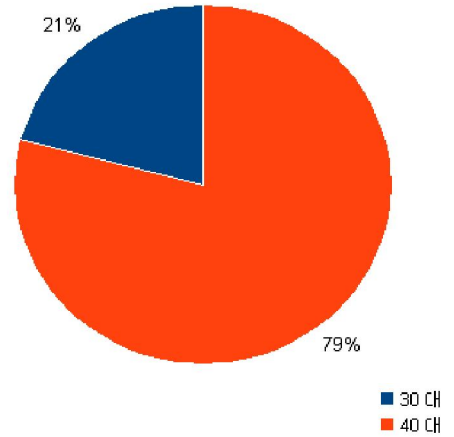
운영위원 성별 분포

### 연령별 분포

운영위원의 평균 연령은 42세입니다. 모두 30대와 40대로, 20대와 50대 이상의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30대 운영위원은 5명으로 21%이며, 40대 운영위원은 19명으로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전체 회원중 30대와 40대 회원 비율이 75.5%이고, 상근활동가도 2009년 8월 기준으로 13명중 12명이 30대와 40대여서, 전반적으로 시민행동의 인적 구성이 30대와 40대로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와 직업군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조직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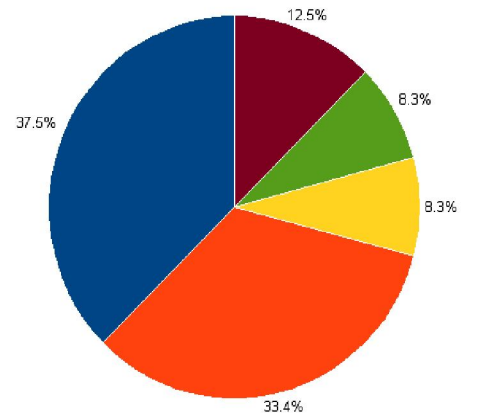
### 직업별 분포

운영위원 24명중 9명은 대학 교수로 전체 운영위원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및 재단 활동가가 33.3%(8명),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각각 8.3%(각각 2명), 작은 규모의 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 대표가 12.5%(3명)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재단 활동가 8명 중에서 6명은 규약 상 당연직 운영위원인 사무처 상근활동가이며, 나머지 2명도 시민행동에서 상근활동가로 근무하다 퇴직 후 다른 시민단체와 재단으로 이직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3명의 기업대표도 시민운동과 학생운동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54% 정도를 차지하며, 시민운동과 학생운동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6%로, 운영위원의 전문가와 운동가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립초기부터 전문가와 운동가가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함께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운동가 이외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행동이 회원에 기반한 조직인 만큼, 각 사업 영역과 운동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앙에서 반시계방향으로: 교수(37.5%), 활동가, 변호사, 회계사, 기업대표

운영위원 직업 분포

※ 시민단체, 재단 활동가에는 규약상 당연직 운영위원인 사무처 상근활동가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수	시민단체/재단활동가	변호사	회계사	기업대표
37.5%	33.4%	8.3%	8.3%	12.5%

## 운영위원의 전문성

24명의 전체 운영위원 중 54%(13명)는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전문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부 예산 감시에 대해 의견을 주는 전문가가 7명이며, 기업 활동 감시에 대해 의견을 주는 전문가가 2명,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가 4명입니다. 이처럼 각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 운영위원들이 시민행동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에 대해 조언해 주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인사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의 상당수가 각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반 회원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시 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과 시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과 시민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과 조직 운영에 경험이 있는 운영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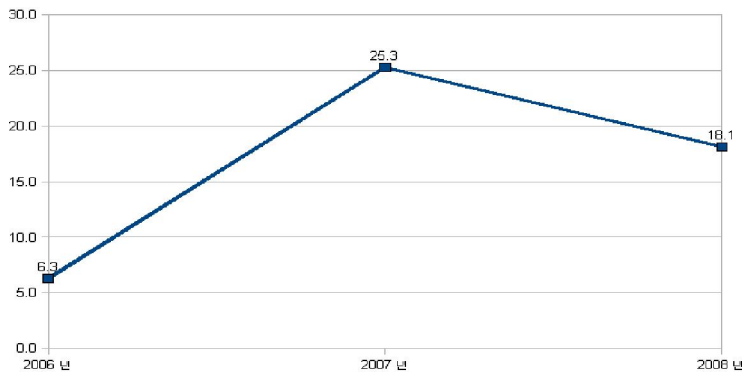
### 상근활동가의 운영위원 참여

창립 초기부터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일정 수의 상근활동가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총 6명으로 운영위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근활동가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사무처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근활동가는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하는 실무 인력인 만큼, 조직의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무처의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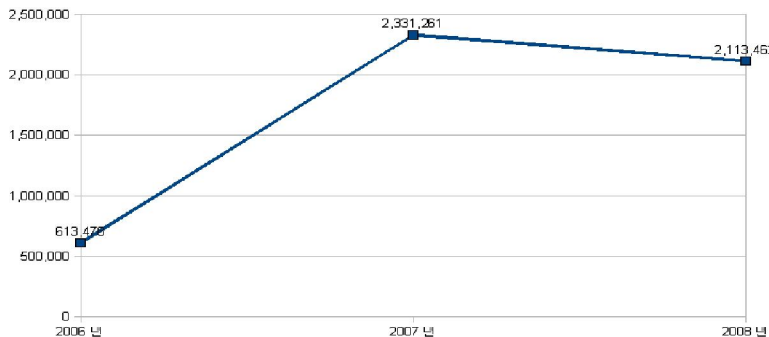
## 운영위원의 기여와 준수 의무

### 무보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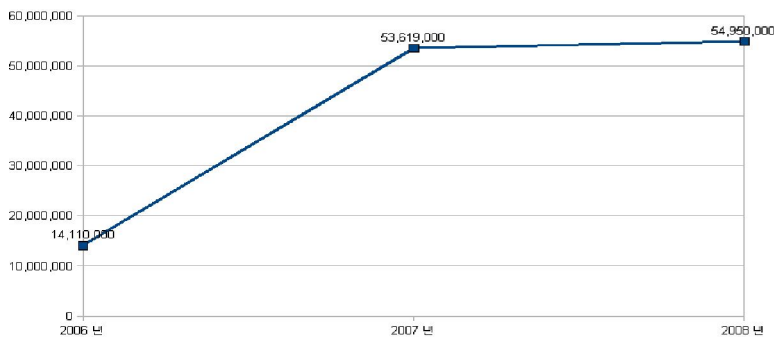
상근활동가만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며, 운영위원을 포함한 임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으로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원금의 시민행동 전체 회비/후원금 수입 중 비중



임원 1인당 연간 후원금



임원의 연간 후원금 총액

### 재정적 기여

운영위원은 조직 운영을 위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후원행사때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기적으로도 시민행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근활동가 운영위원을 제외한 20여명의 임원들이 2006년에는 1,411만원을, 2007년에는 5,361만원을, 2008년에는 5,495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임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2006년에는 1인당 61만원, 2007년에는 233만원, 2008년에는 211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임원들의 후원금은 시민행동 전체 회비와 후원금 수입의 6%에서 25%를 차지할 만큼, 매우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의 준수 의무

운영위원은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위원이 다른 업무 수행으로 시민행동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운영위원의 정당 가입은 금지하지 않으나, 정당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 활동 실적 | 최근 5년간 활동 실적

연도	회차	일자	주요 안건
2004년	1	1.30	사업계획 검토, 회원 총회 상정안 확정, 규약 개정안 검토, 2004년 17대 총선 대응 계획 논의
	2	3.26	탄핵 경국 대응 방향 논의,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3	4.28	용천역 폭발 사건 피해 돕기 캠페인 논의, 작은 후원회 준비 검토
	4	5.28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5	6.25	정책협의회 안건 및 계획 검토
	6	8. 9	지난 5년 시민행동 사업 및 조직 평가
	7	8.27	후원의 밤 일정 검토, 신형경수도 현재 판결 대응 논의
	8	10. 7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9	11. 5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10	11.26	2005년 총회 일정 검토,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11	12.23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2005년	1	1.14	2005년 사업 방향, 중점 과제, 부서별 주요 계획 검토
	2	2.25	남북공동행사 참가 제안 검토,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3	3.25	버마민주화운동 연대 모임 제안 검토,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4	4.29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5	5.27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6	6.24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7	7.21	시민행동 미래 전략 및 활동 방식 논의
	8	8.21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9	9.29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10	10.28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11	11.25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2006년	1	1.25	2006년 사업 방향, 부서별 주요 계획 검토
	2	4. 7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3	5.12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4	6. 1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5	7. 7	상반기 평가
	6	8.17	향후 집중 과제 선정
	7	11.10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2007년	1	1.25	임원 추천, 2007년 사업 및 재정 계획 검토
	2	3.23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3	5. 4	시민의 신문 사태 논의,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4	6.29	하반기 주요 일정 점검,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5	8.27	사무실 이전 신축 계획 검토, 후원의 밤 준비
	6	10.26	하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여부 논의,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7	12.22	회원 설문조사 결과 검토, 10주년 맞이 주요 사업 계획 논의
2008년	1	2.14	2008년 주요 사업 계획 논의, 운영위원회 개편 및 상임운영위원회 신설 논의
	2	5.30	상반기 상임운영위원회 활동 평가, 10주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3	8.21	주요 활동 및 재정 보고, 10주년 비전 및 관련 사업 검토
	4	12.19	2008년 사업 평가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처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재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활동 현황은 시민행동 홈페이지(문서보관소 -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운영위원회 활동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상근활동가 현황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 실무 역할을 맡는 사무처 구성원들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람들로, 2009년 8월말 현재, 1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 직책		이름	업무
사무처장		오관영 (1999 - )	사무처 총괄
공정사회국	공정사회국장	김영홍 (1999 - )	공정사회국 총괄, 정보인권운동
	정책팀장	정란아 (2000 - )	안식년 (2009년)
	좋은기업팀장	신태중 (2001 - )	CSR 브리프, MB 행복지수
	좋은기업팀원	유 경 (2007 - )	비정규직 대응, CSR 활동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최인욱 (2000 - )	정책연구실 총괄, 예산감시운동
	정책연구팀장	채연하 (2004 - )	예산낭비 대응, 국회 대응
기획실	기획실장	장상미 (2002 - )	기획실 총괄
	기획실 팀원	최성인 (2009 - )	회원 관리 업무
	기획실 팀원	마웅저 (2009 - )	피스라디오 캠페인
	페어라이프팀장	박준우 (2001 - )	페어라이프 캠페인 총괄, 인턴/자원활동가 관리
	페어라이프팀원	이기수 (2009 - )	페어라이프 캠페인 진행
	회계	정홍순 (2006 - )	회계

※ 2009년 상반기 사무처 개편에 따라 편성된 현황표로, 2008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 형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경합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근무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상근활동가 중 10명은 Full-Time 상근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상근활동가는 주당 2일-4일의 Part-Time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직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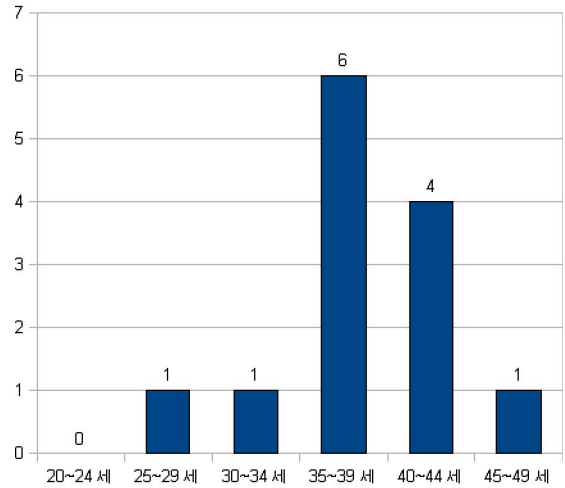
현재 상근활동가 대부분이 실·국장, 팀장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첫째, 상근활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을 기반으로 상근활동가의 숙련도가 다른 시민단체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팀장 및 실·국장급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자체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더욱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행동의 상근자들은 직책에 따른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를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을 중심으로 다른 상근활동가와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근속연수가 낮고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적은 신입 상근활동가가 들어오며 따라 팀장, 실·국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도가 점점 낮아져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책 및 의사결정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분하여 각 실·국장, 팀장의 역할과 팀원의 역할 규명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 팀원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동의 운영과 활동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도 묵묵히 버텨온 전현직 상근활동가의 노력이 시민행동을 빛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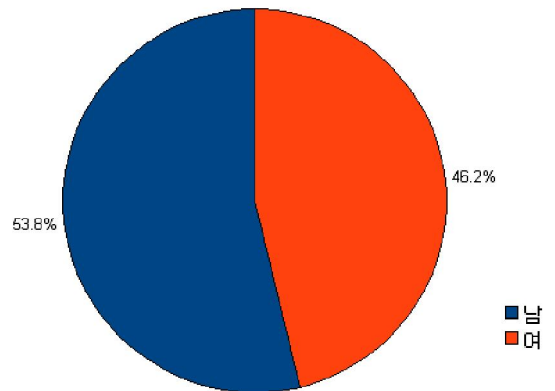
### 연령별 분포

상근활동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40대입니다. 그중에서도 35-39세에 가장 많은 6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상근활동가는 1명에 불과하며, 20대 상근활동가도 2009년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상근활동가의 평균 연령은 37.8세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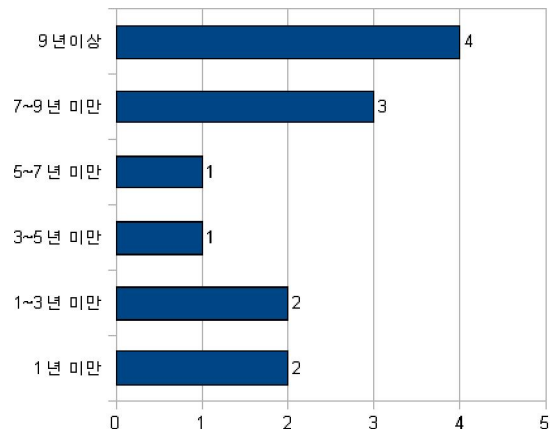
### 성별 분포

상근활동가 13명중 여성 상근활동가가 6명, 남성 상근활동가가 7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근속기간

상근활동가의 시민행동 평균 근속기간은 약 6년입니다. 9년 이상의 근속한 상근활동가는 4명이며, 다음으로 7년에서 9년 미만의 근속이 3명입니다. 1년 미만의 상근활동가는 2009년 4월에 채용한 신입 상근활동가 2명입니다.



##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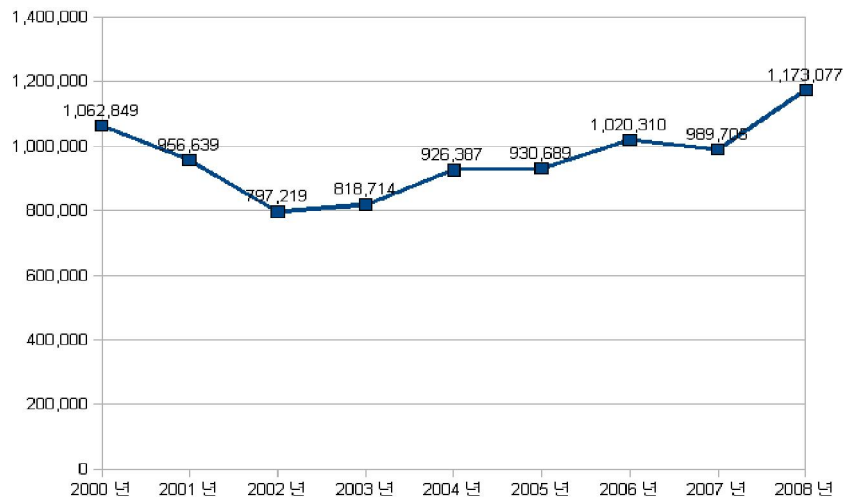
상근활동가의 급여 체계는 기본급, 호봉,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70만원이며, 근속수당은 1년 경과시 2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고교졸업 연도를 기준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 30만원, 실·국장 20만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는 사무처장부터 신입 상근활동가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계산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신입 상근활동가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팀원에게도 직책수당 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급여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어, 상근활동가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재정의 어려움으로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생계비가 급박한 상근활동가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근무일과 근무시간

창립시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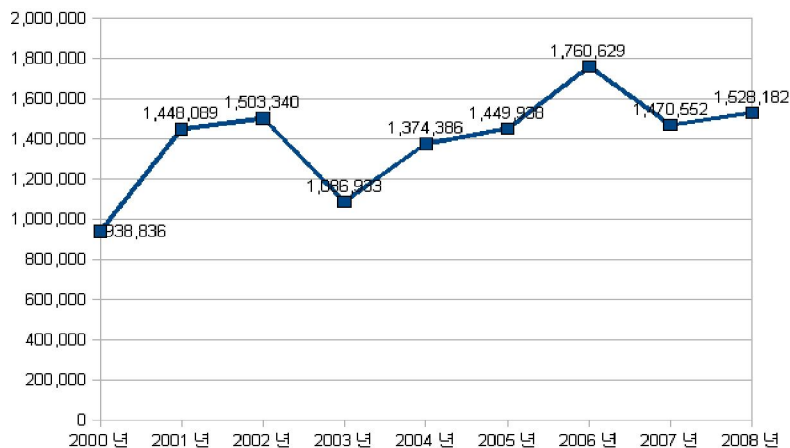


상근활동가 1인당 월평균 임금 수준 (연간 급여 총액 / 연간 평균 상근활동가 수)



## 복리후생

- **퇴직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 정액의 퇴직급여를 매년 총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다 안전한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가입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2명의 여성 상근활동가가 출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 **육아휴직** : 법률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명의 여성 상근활동가가 각각 3개월과 1년의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습니다.
- **학업휴직** :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 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의 상근활동가가 대학원 진학으로 1년의 학업휴직을 다녀왔습니다.
- **안식년 제도** : 일정기간 근속한 상근활동가에게 유급의 안식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3개월,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7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의 유급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7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5명이 이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1명의 상근활동가가 안식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한 상근활동가 2명이 3개월 미만의 안식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기계발비 (0계 기금)** : 0계 기금은 시민행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계모임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상근활동가가 필요로 하는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이 어려워, 회원들이 일정금액을 시민행동에 후원하고, 후원금은 0계 기금으로 쌓여서 상근활동가의 자기계발비로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87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 상근활동가 복리후생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 총액 / 연평균 상근활동가 수

##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정휴가 이외에도 리프레쉬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활동가의 재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쉬 휴가는 법정 휴가 이외에 상근활동가가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로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연 1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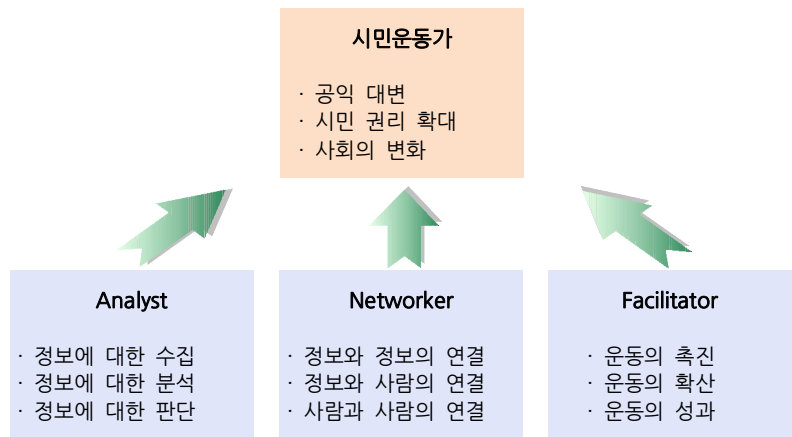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10년간 업무로 인해 질병과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율은 0입니다.

## 상근활동가 교육

### 시민운동가로 성장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건강한 시민운동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일반 시민들의 공익적 이해를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 운동가로, 시민의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운동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운동을 촉진시키고 확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를 Analyst, Networker, Facilitator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 상근활동가 교육 :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평균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기획, 진행합니다.
-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 : 새로 채용된 수습 상근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상근자 워크숍 :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함께 학습과 활동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 개인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지원 : 개인이 요청하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를 내부 구성원의 동의하에 지원합니다.

###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

첫 신입 상근활동가가 들어온 2002년부터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신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입 상근활동가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민사회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 개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민운동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과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또는 업무외의 일로 해외의 시민단체와 활동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적 (2000년 - 2008년)

연도	인원	주요 내용
2000년	1명	서버관리자 교육
2001년	3명	리눅스 교육, 국회 의정연수
2003년	2명	웹 디자인 교육, 리눅스 중급 과정
2004년	3명	국회 의정연수, 정책분석평가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전략
2005년	6명	영어 Intensive Course, Creative 온라인 광고 제작 실무, NGO Project Management, 인디저널리스트 과정, 아트디렉터 Intensive Course, 영상제작 교육
2007년	1명	시민사회 경제교실
2008년	1명	NPO 리더쉽 교육

### 해외 출장 및 연수 지원 (2000년 - 2008년)

연도	인원	기간	국가	주요 내용
2000년	1명	10일	미국	세계청년탐구단 미국 납세자단체 방문
	1명	1개월	미국	UN 밀레니엄 포럼
	1명	2주	독일	독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2001년	2명	1주	필리핀, 태국	아시아 NGO 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와 빈곤을 중심으로
	1명	1개월	미국	미국 국무성 초청 방문 프로그램
	1명	2주	네팔	시민단체 활동가 영성 체험 연수
2002년	1명	1주	일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법제개선지원단 일본 연수
	1명	1주	남아공	리우+10 세계환경정상회의
2003년	1명	1개월	미국	미국 국무성 초청 방문 프로그램
	1명	5일	일본	W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아시아 총회
	1명	10일	말레이시아	아태성인교육 Basic-Course
	1명	5주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필리핀, 대만	아시아 5개국 NGO 활동가 취재
	1명	12일	독일	독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2004년	1명	1주	인도	세계사회포럼 참석
	1명	1주	중국	아시아 NGO 정보센터 방문
	1명	1주	홍콩	GRI 가이드라인 라운드테이블 참가
2005년	1명	1주	독일	독일 납세자연맹 방문
	1명	2주	중국, 러시아	518 아카데미 참여
	1명	3개월	필리핀	아시아 NGO 센터 연수
	1명	4일	일본	한일 우정의 잔치
2006년	1명	1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동남아 해외 연수 프로그램
	1명	1년	미국	청암재단 시민단체 활동가 제1기 해외연수
	1명	2주	동남아	그린&피스보트
2007년	1명	1개월	미국	뉴욕 청년학교 연수
	1명	4개월	필리핀	아시아 NGO 센터 연수
	1명	1주	영국, 네덜란드	GRI, EIRIS 방문

##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 모집·채용 원칙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모집·채용시 개인의 인성과 직무능력,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들과 연락처 이외에 일체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별, 학력, 나이, 출신학교,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민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취업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지 않습니다.

###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행동 사업부서인 인터넷 시민학교와 공익소송센터를 각각 2005년과 2002년에 해소 시 전체 상근활동가의 논의와 합의 속에 진행하였으며, 소속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사업단위로 전환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 연령 이상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특성상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양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칙

버마운동가 마웅저 인턴 활동 지원과 상근활동가 채용 : 마웅저 (Maung Zaw)는 버마 8888 항쟁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가한 후 출공 버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왔습니다. 1994년 군부의 탄압을 피해 버마를 탈출, 한국에 왔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오랜 소송을 제기하다 결국 2008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현재 한국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민행동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급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턴 활동 중인 2005년, 동료 9명과 함께 법무부의 추방명령을 받게 되자 시민행동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행정소송을 지원하였고, 2008년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09년부터 시민행동 상근활동가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마웅저의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관련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 상근활동가의 준수 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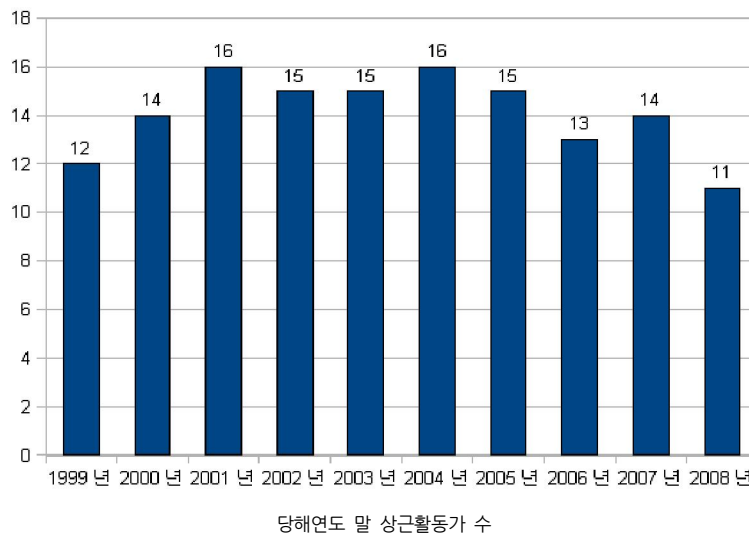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행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실·국장은 정당 가입은 금지하니 않으나, 평의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근활동가의 총원과 자원활동가의 참여

### 연도별 상근활동가 규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시부터 조직의 적정 상근활동가 규모를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인력 수요와 사무처 내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규모가 15명 내외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말 기준 상근활동가 평균은 14명 수준이며, 2008년 말에 11명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현재는 13명의 상근활동가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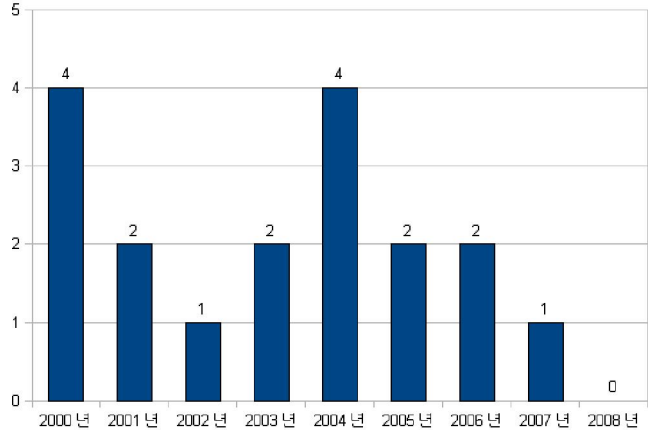
### 상근활동가의 총원

상근활동가의 총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시민단체 상근활동가의 총원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 총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근무조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더욱 더 총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을 하지만,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채용 시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은 직업 운동가를 선택하기 전에 자원활동이나 인턴 경험으로 시민운동을 체험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채용한 상근활동가 18명중 7명이 시민행동에서 인턴이나 자원활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연도별 상근활동가 총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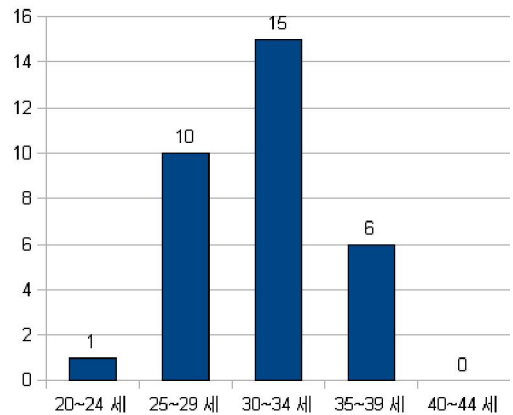
1999년 창립 출범시 13명의 상근활동가가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명에서 4명의 상근활동가를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2000년과 2004년의 신규 상근활동가 채용이 많았던 것은 그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채용 시 상근활동가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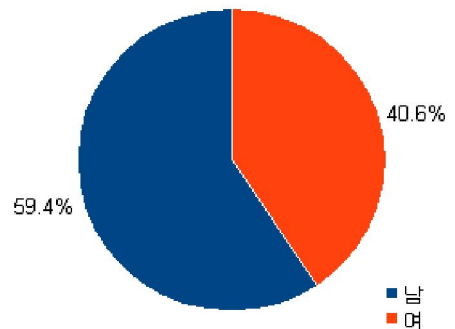
처음 시민행동에 들어올 때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11명, 30대가 21명입니다. 신규 상근활동가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대학 등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시민행동에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30대 비중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창립 초기인 1999년 - 2000년 사이에 시민행동에 들어온 인력이 과거 다른 시민단체에서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비교적 높은 나이 대에 시민행동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 신규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

상근활동가 남녀별 채용 비율은 6:4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턴과 자원활동가

인력 수요가 있어도 재정 문제로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가 시민행동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제외하면 대표, 운영위원 등 비상근 임원 모두가 사실은 자원활동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대개 자원활동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 번역에서부터 연구 프로젝트 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까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창립행사과 총회, 후원의 밤, 소모임 등 각종 행사의 기획과 연출, 웹기획과 프로그래밍 등 단체 운영과 관리 부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 학기마다 서울대와 한양여대 등 주요 대학들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말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역대 인턴

연도	이름	기간	활동 내용	비고
2000년	김정부	1년	예산감시운동	
	정태형	3개월	사무국	유급인턴
	김은영	3개월	사무국	유급인턴
2001년	박준우	6개월	프라이버시운동	상근활동가로 채용
	신태중	6개월	예산감시운동	상근활동가로 채용
2002년	이운소	3개월	프라이버시운동	
2003년	이호준	3개월	유권자운동	상근활동가로 채용
	최사라	2개월	예산감시운동	
2004년	마웅저 Maung Zaw	4년	버마민주화운동	주2일, 상근활동가로 채용
	이영진	2개월	정보인권운동	
	윤덕현	3개월	기획실	상근활동가로 채용
2005년	옥미애, 정하나	2개월	싸이월드 프라이버시 실태조사	이화여대 NGO 인턴쉽
2006년	이미희	1개월	기획실	상근활동가로 채용
2007년	김건우, 서윤원	2개월	기업DB 기초작업	씨티-경희대 NGO 인턴쉽
2008년	김승민	2개월	서울시 지방의회 의정비 보고서	씨티-경희대 NGO 인턴쉽
	함의영	2개월	피스라디오 캠페인, 기업DB 기초작업	
	타로 Taro	2개월	캄보디아 활동가	성공회대 MAINS 인턴쉽

### 최근 2년간 자원활동

연도	인원	총시간	1인당	활동 내용	비고
2007년	26명	717시간	28시간	월드넷 자료 조사 및 번역, 예산감시 뉴스 클리핑, 대안생활백서 제작	서울대, 한양여대 사회봉사 프로그램
2008년	56명	1634시간	29시간	월드넷 자료 조사 및 번역, 민생법안 현황 조사, 해외 사회책임보고서 조사, 대안생활백서 라이프피디아 자료 조사, 차별공감보고서 작성, 고질라 라디오 대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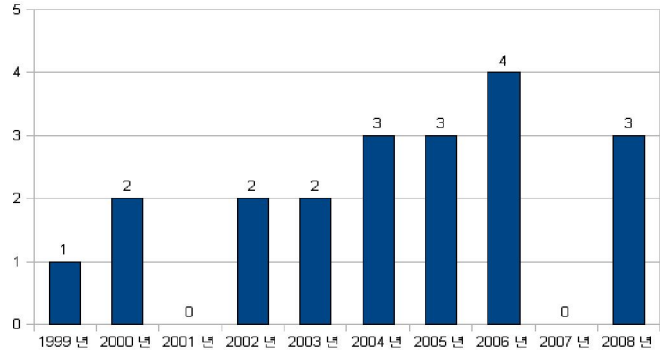
## 상근활동가의 퇴직

### 연도별 퇴직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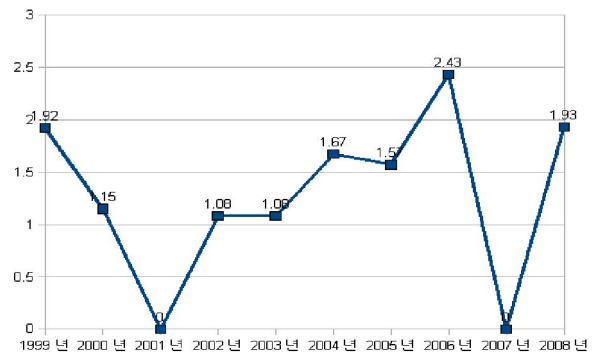
연평균 2명 정도의 상근활동가가 퇴직하였습니다. 2004년 이후로 13명의 상근활동가가 퇴직하여, 퇴직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에 의한 퇴직률(당월퇴직자수/전월말재직자수×100)을 보면, 연 평균 1.28%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비교적 상근활동가의 이직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GRI 기준에 의한 퇴직률(당해연도총퇴직자수/당해연도말재직자수×100)은 14.6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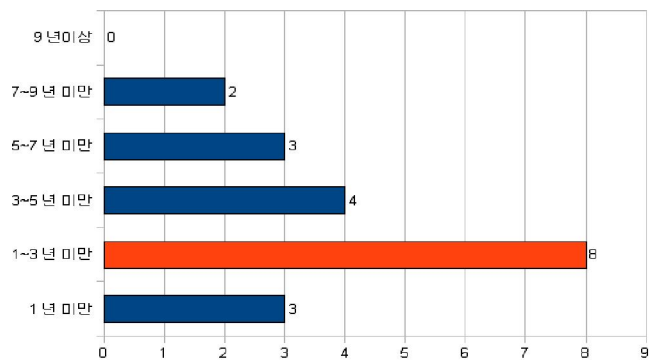
연도별 퇴직자 수



통계청 기준에 의한 퇴직률 (당월퇴직자수/전월말재직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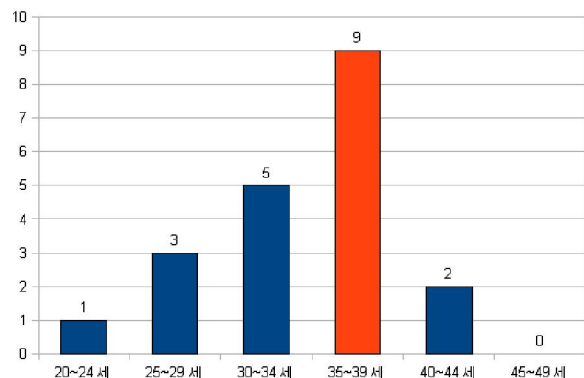
### 퇴직자 평균 근속 연수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28년입니다. 20명의 퇴직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은 3년 이내에 퇴직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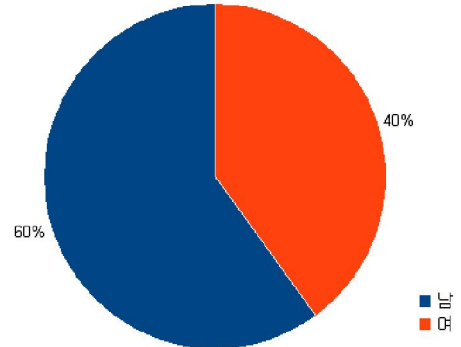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퇴직 현황

퇴직시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입니다. 30대 중후반(35세-39세)에 퇴직하는 경우가 높았는데, 이는 상근활동가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상근활동가는 평균 31세이 되어와서 3년 근무 후 34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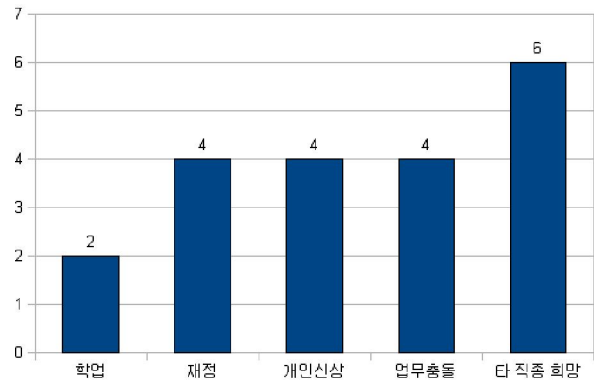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퇴직 현황

퇴직자의 남녀비율은 6:4입니다. 남성 상근활동가가 12명, 여성 상근활동가가 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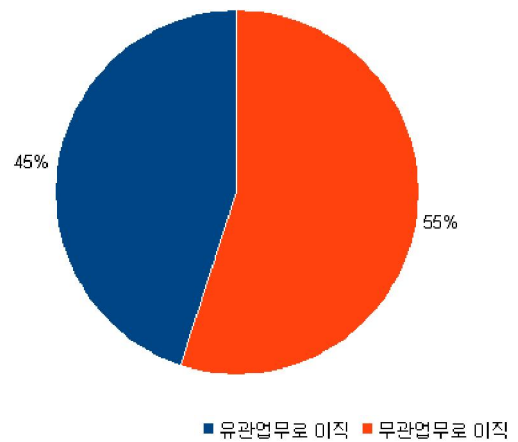
퇴직사유를 보면,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전직을 희망한 경우가 전체 퇴직 사유중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30대 중후반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전직한 경우가 높습니다. 그 외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2명, 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직이 4명,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 4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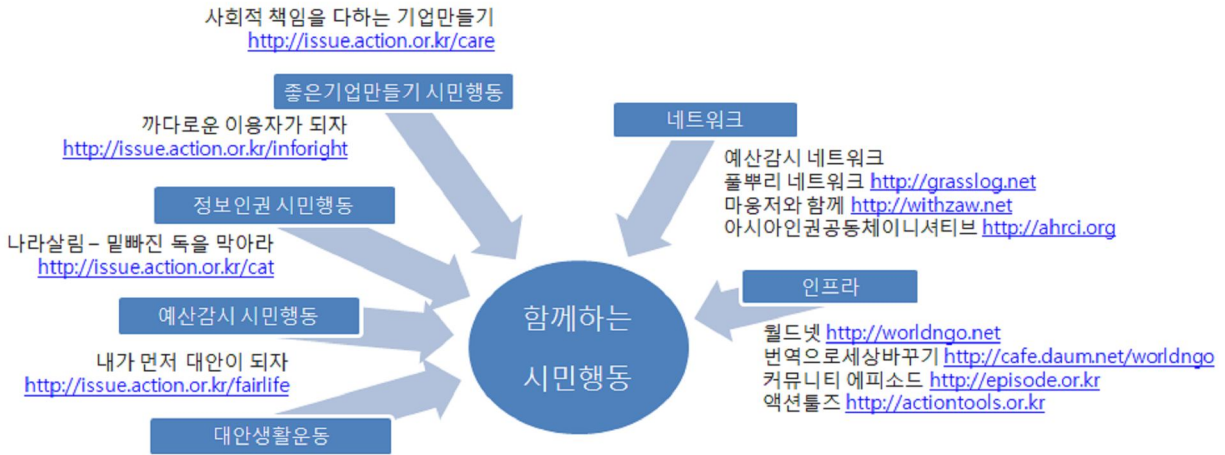
### 퇴직 이후 관련 활동 지속 여부

상근활동가는 퇴직 이후에도 시민행동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도 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에 공동으로 활동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퇴직자 20명중 9명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재단 혹은 일반회사의 관련부서로 이직하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시민행동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성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 예산감시운동

나라살림,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새는 구멍이 자꾸 생깁니다. 혹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낡아버린 독이기 때문에 새기도 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이런 구멍을 찾아내고 고쳐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일명 '밀빠진독을 막는 두꺼비'들이 바로 예산감시 시민행동입니다. 1999년부터 밀빠진독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이 보다 국민에게 이롭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연혁

1999년	예산감시시민행동 출범
2000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지역 예산감시단체 및 부문단체 네트워크) 구성 예산낭비를 막는 '밀빠진독상' 수여 시작(1회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에 관한 행정소송 (한국 최초의 납세자소송) 제기
2001년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두꺼비 프로젝트(예산감시운동 시민 모금, 홍보 캠페인 등) 진행 공적자금 감시운동 - 공적자금 조사보고서 발간
2002년	참여예산조례(지방정부 예산편성예의 주민참여제도) 제정운동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조사(인터넷 재정공개,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지방자치의원학교 개최 제1회 예산활동가학교 개최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년	경향신문 공동기획 '국가예산 대해부'(약 5개월간 연재)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선정활동 시작 국회 예결특위 시민 모니터링(예결위원별 평가 등)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보고서 발표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주최 :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신문)
2005년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예산개혁 10대 과제 발표 사회단체보조금(민간단체지원예산)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 구성 지역비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주민소환제 입법운동 - 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성공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발간 법안비용추계제도 개선활동(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조사 등)
2006년	시범 주민소송 지원활동(3개 지역 주민소송 제기)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3년간 3개 시범지역 참여예산운동 진행)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 개설 주민참여제도 확립운동(전국 주민발의 실태조사 등)
2007년	참여예산제도 도입 촉구운동(전국 참여예산제 현황조사 등) 납세자(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참여예산제 발상지 브라질 탐방 - 참여예산제도 소개 영상물 제작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3년간 집행내역 실태조사, 감사청구) - 서울신문 기획기사

## 주요 활동

### 예산낭비 감시 활동 - 밑빠진독상 등

밑빠진독상은 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하기 위해 수여하는 불명예상입니다. 2000년 8월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에 제1회 상을 수여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총 35회 시상하였으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축소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중·고교 교과서에 대표적인 시민운동 사례로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시로 다양한 예산낭비에 대해 언론고발, 감사청구, 소송과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은폐된 낭비사례를 밝혀내는 기획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예산정책 제시활동 - 사업예산제, 복식부기제 등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이 보다 국민에게 이롭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정보를 보다 쉽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사업예산제, 복식부기제 등의 도입에 앞장섰고, 그 결과 2007년 ~ 2008년 이들 제도가 전면 시행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밖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법안비용추계 등 여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 예산과정 감시활동 - 국회 예산심의 모니터링, 낭비우려사업 선정 등

2005년부터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에 얼마나 충실히 임하는지를 감시하는 예결특위 모니터링과 의원 평가(2004) 등의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외환위기 후 대규모 공적자금의 사후관리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공적자금 감시활동(2001)도 벌인 바 있습니다.

### 예산교육 및 연대활동 - 예산감시네트워크, 시민예산교육 등

2000년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전국의 지역 및 부문단체를 망라한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사단체를 맡아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을 돌며 예산활동가학교를 개최하였고, 그밖에 수시로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시민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참여 강화활동 - 납세자소송제, 주민참여제도 등

납세자인 국민이 직접 예산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잘 쓰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하에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납세자참여제도의 도입과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2000년 제1회 밑빠진독상 수상사업인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 지역단체와 함께 266명의 주민을 원고로 하는 행정소송(2000)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최초의 납세자소송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주민소송제 도입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소송 이후 67개 시민단체 연명으로 납세자소송특별법안을 입법청원(2000)하고, 납세자소송법안 의원발의(2001)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며 입법청원 등 활동을 펼쳤고, 주민소송제 도입 시기에 주민참여가이드북(2005)을 발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시범 주민소송을 지원했으며, 실제 주민소송 사례를 종합한 주민소송백서(2009)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해 브라질 탐방 기록 등을 모아 참여예산제 소개 영상물을 제작,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

- 2000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 2000년 밀빠진독상 시작 (2009년 6월 현재 35회 시상, 수천억원 예산낭비를 막아냄)
- 2004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시작
- 2004년 주민투표제 시행
-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 구성
- 2006년 주민소송제 시행
- 2007년 주민소환제 시행
- 2007년 복식부기제 전면 시행
- 2008년 사업예산제 전면 시행

## 발간 자료

- 정부개혁모델 (1999년)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2005년)
- 주민참여가이드북 (2005년)
-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2007년)
- 주민참여예산제 (DVD) (2007년)
-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2009년)
-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2009년)
- 예산감시 실무매뉴얼 (2009년)

## 조직 구성

###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가나다 순): 김경복(회계사), 김선구(회계사), 김영수(변호사),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오관영(시민행동 사무처장), 윤영진(공동대표/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근(회계사),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정미화(변호사), 경창수(전 예산감시국장), 하승수(변호사)

### 예산감시국

최인욱(국장), 채연하(팀장)

## 역대 밀빠진독상

회차	수상자	대상사업	문제점
1회	하남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부실행사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예산으로 보전
2회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공적자금	부실경영 책임규명 없이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
3회	익산시	익산보석박물관	개인의 보석기증 약속만으로 사업 추진
4회	(재)천년의 문	천년의 문	사업타당성 부족한 거대 조형물 건설
5회	금융감독위원회	6개은행 공적자금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하고도 부실경영으로 완전감자
6회	청원군	초정약수스파텔	무리한 민자유치로 사업 실패하고 시장은 뇌물수수
7회	건설교통부	시화호	환경파괴 비판 무릅쓰고 사업 강행, 부실계획
8회	(주)부산관광개발	유람선 테즈락호	비현실적 기획사업 강행하여 무용지물화
9회	행정자치부	전국토무공화심기사업	효율성 매우 떨어지는 비합리적 사업강행
10회	농림부	새만금개발	부실계획과 환경파괴
11회	건설교통부	전주신공항건설사업	정치적 목적으로 타당성 과장하여 사업 강행
12회	속초시	청초호유원지사업	비현실적 사업 강행으로 사업실패
13회	부산아시아안경기조직원	잘못된 계약체결	현저히 불평등한 계약 수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 초래
14회	국회	전자투표장치	장치만 설치해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거의 쓰지 않음
15회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지원제도	별다른 역할 없는 퇴직공직자 자리 만들어주기
16회	근로복지공단	직무유기로 가산세납부	업무태만으로 납부기한 넘겨 거액 가산금 추가부담
17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실제 활용 어려운 기기 납품받아 방치
18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재단 지원금	부실운영 민간재단에 건물매입비 등 특혜지원
19회	14개지방자치단체	미스코리아대회 지원	성차별 조장 비판 무릅쓰고 민간행사예 예산지원
20회	한국전력	원격제어에어컨지원사업	효과 전무한 사업에 장기간 예산지원
21회	교육부	교육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침해 비판 무릅쓰고 졸속 추진
22회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막대한 기금 탕진
23회	고양시	노래하는분수대	효율성 없는 사업에 과다한 예산 투여 계획
24회	건교부	경인운하	타당성 왜곡하여 대형 건설사업 강행
25회	서울시	성산배수지건설공사	수요예측 과장하여 환경파괴 우려사업 강행
26회	충청남도	(주)중부농축산	부실한 계획수립과 경영으로 단기간내 사실상 파산
27회	39개지방자치단체	새마을회관건립지원	특정 민간단체 자체회관 건립비에 예산지원
28회	3개 정당	정당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부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
29회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 졸속추진과 재판 패소로 막대한 손실
30회	재경경제부	국유지관리 부실	일본인명의 토지까지 방치되어 있는 엉터리 관리실태
31회	서울시	탄천하수슬러지처리장	부실추진으로 가동 못한 채 장기간 시설 방치
32회	광명시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계획으로 건설 후 무용지물
33회	건설기술연구원 등	허위출장	조직 전반에 허위출장 만연, 예비규정 개선 촉구
34회	재정경제부 등	직급보조비 비과세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처리하여 과세 누락
35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스포츠토토 등 수익 적립하여 국회 통제 없이 장관 쌈짓돈화

## 정보인권운동

정보화시대,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할 정보소통 환경이 정보의 상업화를 넘어 독점화, 권력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운동은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평화로운 네트워크를 추구하며, 정보소통의 권리 확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절실한 시기를 알리고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 연혁

1999년	개인정보보호 시민행동(정책위원회 소속) 출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방패 캠페인 4대 PC통신사(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개인정보유출현황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2000년	Privacy.or.kr 도메인 개설(2000.2.21) 닷컴기업들(알짜닷컴, 인티즌, 유니텔)과의 프라이버시 보호 공방 27개 닷컴 기업(포털, 쇼핑몰, 경매, 메일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01년	판례정보제공 88개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조사 정보사회의제만들기 10회 연속 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및 핸드북 발간
2002년	e-mail 주소 리스트 판매자와 메일 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스팸 메일에 대한 옵트인 규제 대안 제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백서 발간, 정부홈페이지 불평등 요소 시정 요구
2003년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노리추(노무현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를 통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지지활동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발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보고서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보고서 발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3차례 연속 워크숍 개최 역감시카메라 캠페인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주간' 행사)
2004년	정보인권위원회 결성 (정책위원회에서 분리) 언론사 인물정보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의견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 RFID(전자추적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10가지 가이드라인 v1.0 제안 중앙선거패러디 위원회 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시민단체안 공동 입안 정보 트러스트 디지털 유산보존에 관한 기초연구 발표
2005년	01포럼 구성 및 4회 운영 (인터넷중량제, 포털, 검색, 해킹) '2005 빅브라더상' 공동 주관, 싸이월드 사생활 정보 실태조사
2006년	취업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표, 포털 이용자 캠페인, 정보인권지수 개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07년	ActiveX 기반의 전자정부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UCC운용기준' 헌법소원 제기
2008년	방송통신위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사례 검토 OK캐쉬백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



## 주요 활동

###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1999년부터 프라이버시 운동 분야를 개척 하였으며 공공부문,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의제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범의 변화를 제시 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주제의 연속적인 토론회와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 형성을 만들어왔습니다. CCTV와 RFID(전자추적표)등 디지털화 되고 있는 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기하여 정부가 관련 법제와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정보접근권 활동

2002년부터 정부 홈페이지가 MS기반의 특정 기술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2003년 MS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의 선택권을 원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를 선물하는 포지티브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개소프트웨어 진흥 센터를 만드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등의 주요 보안기능을 MS의 Active X 기술에 의존하는 등 한국은 MS사의 기술 정책에 따라 컴퓨팅 환경이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 표현의 자유 활동

2003년부터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위한 서한 발송, 기자회견, 불복종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나 법제화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위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지지여론이 강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 시킨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위해 선거법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격을 갖지만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 정보트러스트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공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운동 모델입니다. 2004년 '디지털 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웹진 '스키조'를 복원하였고, 보존 및 복원해야 할 정보들을 선별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 운동의 간사 역할을 한 시민행동은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의 내용과 주체를 2005년 하반기부터 다음세대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의 하루 풍경을 보존하는 인터넷의 하루@2005에서 처음 시작한 캠페인은 다음세대재단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성과

- 1999년 프라이버시 보호를 사회 주요 의제 영역으로 불러옴
- 2000년 인티즌, 유니텔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수정
- 2001년 정보사회의제만들기 10회 연속 토론회를 통하여 정보화 시대의 사회운동 의제 발굴
- 2002년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뷰어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현 삭제
- 2003년 CCTV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끌어내고 법제에 일부 반영
- 2004년 인물 정보서비스 업체 사후 조치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발송
- 2004년 정부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2004년 KT 소디스(개인정보 매매사업) 사업 변경
- 2005년 싸이월드 사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자체 보호 캠페인과 기술적 조치를 이끌어냄
- 2005년 한국철도공사 철도회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 문제 시정
- 2006년 리크루트, 인쿠르트, 스카우트, 코리아TM, 잡코리아, 워크넷 개인정보 문제점 수정
- 2006년 프리나와 다이하드측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수정
- 2006년 포털이용자운동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정착 및 포털의 책임성 강화 움직임에 기여
- 2006년 정보인권지수 개발
- 2006년 인터파크 인적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이전에 관하여 기술적인 조치 보강
- 2008년 SK마케팅앤컴퍼니로의 OK캐쉬백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관하여 추가 조치 시행

## 주요 발간 자료

-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2001년)
-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ver.1 (2001년)
-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2002년)
-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보고서 (2002년)
-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2002년)
- 프라이버시 보호핸드북 ver.2 (2003년)
- 프라이버시 교육 자료집 (2003년)
- 빅브라더와 그 적들 (2003년)
-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2003년)
- 공공기관 개인정보화일 실태 조사 보고서 (2003년)
-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2003년)
- 금융기관과 인터넷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3년)
- RFID와 프라이버시 (2004년)
- 싸이월드와 정보프라이버시 (2005년)

## 구성

### 정보인권위원회

위원장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위원(가나다순) : 강장목(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철(한국정책직식센터 연구원), 민병덕(변호사), 박수호(불교사회연구소),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이미숙(행정학 박사), 임규철(동국대 법대 교수), 장근영(청소년정책연구원), 지승훈(보안 전문가)

### 정보인권국

김영홍(국장, 공정사회국장 겸임)

## 좋은기업만들기운동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사후처리 과정에서 경제/사회/환경 등 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기업만들기운동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키워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 연혁

1999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출범
2000년	안티닉스 운동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참여 - 전자상거래 감시분야 코스닥 법인 단기매매 차익 반환 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자료 열람
2001년	기업 구조조정의 극과 극 발표 유가증권 발행 주관 증권사의 극과 극 발표
2002년	삼성생명 온라인 배너광고 시정조치 장애인 고용의 극과 극 발표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시작
2003년	가면을 벗겨라 프로젝트 진행 - 시민운동지원기금 ASrIA(아시아 사회책임투자 협회) 초청 간담회
2004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 5회 연속 워크샵 G3 가이드라인에 대해 GRI에 의견서 전달 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 기아자동차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기업도시 반대 연대 대응 활동
2005년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시작 - 퀵서비스 기사, 수도 검침원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3회 연속 워크샵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 슈에 가스 개발 공동 대응 활동
2006년	특수고용노동자 - 학원차량기사, A/S기사, 경수기 등 방문서비스 실태조사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 참여 지역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 -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문제제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운동 - 휴면계좌의 공격활용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 대응 활동
2007년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평가 (한겨레신문 기획기사 - 지속가능 기업으로 가는 길)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활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촉구 활동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진상규명 촉구 연대 활동
2008년	동아시아 기업의 CSR 성과 비교 연구 프로젝트 (한겨레신문 공동기획 - 아시아 기업 사회와 소통하다) 특수고용노동자 -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실태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진행 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 대응 연대 활동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지속가능경영학교 파트너 협약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 대응 활동

## 주요 활동

### 좋은기업만들기운동의 출발 - 안티닉스

1999년, 한 의류업체가 인터넷 사업 진출을 준비하며 상금 3억원을 걸고 도메인 네임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 당선자가 관련사 직원으로 밝혀져 이 행사에 응모했던 네티즌 사이에서 자발적인 항의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닉스(NIX) 도메인 사건 해결을 위한 네티즌 행동’이 그것이지요. 시민행동은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사이버시위를 조직하는 등 연대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업체로 하여금 사과 뿐 아니라 상금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게 만드는 큰 성과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업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사회적, 도덕적 기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대응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2005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 퀵서비스 기사, A/S기사, 학원차량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노동자성 인정과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부족하지만 일부 직종의 경우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이외에 이랜드, KTX 여승무원, 기흥전자 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불매운동, 기자회견,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 좋은기업만들기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운동 의제로 가지고 우리사회에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2005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과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기업, 시민단체, 노조,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004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함께 한국 기업, 나아가 동아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인 GRI에 2004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17대 국회 구성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2002년 11월, 시민행동은 SK사가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미지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업 내부에서는 법정 의무고용율도 지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의 첫 출발입니다. 이 캠페인은 이후 가면을 벗겨라 보고서 시리즈와 가면광고 컨테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무책임한 활동을 비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 기업의 극과 극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분야(환경, 노동, 소비자, 주주, 투명성 등)에서 양극과 음극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한국 기업의 극(極)과 극(極) 보고서. 우리 사회와 기업이 다시 생각해 보거나 새롭게 가져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환기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긴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것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극과 극’(2001년), ‘유가증권 발행 주관 증권사의 극과 극’(2001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극과 극’(2002년)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성과

1999년 안티닉스 활동으로 해당 업체 사과 및 상금 사회 환원  
2002년 SK그룹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개선 조치 시행  
2002년 KTF 모집·채용시 연령제한 폐지  
2002년 삼성생명 온라인 배너 광고 대체  
2003년 ASrIA(아시아사회책임투자협회)에 CSR 운동 단체로 소개  
2004년 삼성SDI, 롯데백화점 등 지속가능보고서 의견 반영  
2007년 퀵서비스 기사 노동조합 결성,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 시행  
2008년 UN PRI, UN Global Compact, UNEP 등 UN 기구 주최 국제회의에서 동아시아 기업 CSR 연구 결과 발표

## 주요 발간 자료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백서 (2003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 자료집 (2004년)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실태 (영상 자료) (2005년)  
A/S기사와 학원차량 기사의 근로실태 -특정 사업장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 특수고용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 (2006년)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평가 결과 (2007년)  
동아시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연구 (2008년)

## 구성

###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

위원장 :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위원(가나다순) : 김영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면(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우성(한겨레신문 기자)

### 좋은기업만들기국

신태중(국장), 유경

## 정책대안운동

전문화된 사업영역이 아니더라도 주요 사회 현안들에 대해 유권자로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민단체들에 부여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책실에서는 주요 국정 현안 및 사회적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정치관계법, 국회법 등 국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 연혁

1999년	두루넷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연속 개최 - 공적자금, 386 정치, 코스닥 등
2000년	4.13 총선 유권자 참여마당 ivote.net 개설, 운영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16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평가 및 발표 아시아개발은행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 필리핀 파식 강 개발사업 중단
2001년	<11인의 경제전문가가 말하는 2001년 한국 경제 해법> 출간
2002년	대선 유권자 프로그램 <메신저 액티비스트> 운영 2002 대선유권자연대 참가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 캠페인 및 모금 빈곤층에 대한 한전의 강제 단전단수조치 중단 캠페인 미디어다음, 시민방송RTV 공동 생중계 3회 연속좌담 -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17대 총선 캠페인 [바로 알고 바로 찍자] 진행 손봉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개혁 연속토론회 개최 - 교섭단체, 법률안 비용추계, 입법영향평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참가, <포럼 여울> 구성 미 대통령 조지 부시 재선 당시 ‘소리에브리바디에 화답하기’ 캠페인 진행
2005년	연속토론회 <헌법 다시보기> 진행 시민의 신문 - 시민방송 RTV 공동 기획 <다시묻는 토론> 진행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개정예관공청회에 시민사회 대표 진술인으로 참가
2006년	난민인정절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참가
2007년	<헌법 다시보기> 출판 2007 대선시민연대 참가
2008년	MB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마웅저 등 버마민주화운동가 8인 난민인정불허결정 처분취소소송 승소

## 주요 활동

### 유권자 참여 운동

대선, 총선 등 주요 정치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혹은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메신저 액티비스트 활동(2002),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캠페인, 각종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참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치개혁 활동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여타 시민단체와 정치개혁연대를 구성(2003)하여 2004년 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운영 및 입법 과정이 정상화되도록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법률안 비용추계,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 과제를 제안(2004)하여, 2005년에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국정감시활동

창립 이래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회 현안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 평가하여 입장을 제출하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MB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대안적 사회비전 마련

2004년 포럼 여울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대안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했고, 2006년에는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

- 2001년 <11인의 경제전문가가 말하는 2001년 한국 경제 해법> 출간
- 2002년 대통령선거 시민정책대응 캠페인 ‘메신저 액티비스트’ 진행
- 2004년 정당명부제 신설, 합동연설회 폐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투명화 등을 규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 2005년 시민사회 및 정치권에 미래지향적 개헌 논의 확산, 연속토론회 ‘헌법 다시보기’ 진행
- 2005년 법률안 비용추계의무화 조항 신설을 비롯한 국회법 개정
- 2006년 난민인정절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07년 <헌법 다시보기> 출간
- 2007년 겨울철 극빈층 강제단전단수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개선 권고
- 2008년 MB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 2008년 버마민주화운동가 8인 난민인정불허결정 처분취소소송 승소

## 주요 발간 자료

-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들 (1999년)
- 11인의 경제전문가가 말하는 2001년 한국 경제 해법 (2001년)
- 또다른 세상, 또다른 비전 (2003년)
- 연속기획 - 헌법다시보기 자료집 (2005년)
- 헌법다시보기 (2007년)

## 구성

### 정책위원회

위원장 : 공석

### 사무국

정란아(정책실장)



## 기획실

기획실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직, 회원, 홍보, 인사, 교육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창립 당시 사무국으로 시작해 2002년부터 기획실로 개편되었습니다.

## 연혁

1999년	기독교연합회관에 사무실 마련, 인터넷 도메인 신청 <a href="http://www.ww.or.kr">www.ww.or.kr</a>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2000년	창립총회 개최, 후원모임 '작은만찬' 개최, 이메일 뉴스레터 마이캔 발간 종로구 가회동으로 사무실 이전
2001년	창립 1주년 기념행사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개최 시민단체 최초 온라인 회원 총회 개최 (두번째 회원 총회 개최) 창립 2주년 기념행사 '모정' 개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울시) 건물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시민행동 동지만들기 일일호프 개최 성북구 삼선동으로 사무실 이전 (시민공간 여울)
2002년	세 번째 회원 총회 개최, 창립기념행사 '시민행동은 사춘기' 개최 후원그룹 희망클럽 출범 해외 NGO 정보네트워킹 프로젝트 (다음세대재단) - 세계시민단체 3,600여개 DB 구축
2003년	네 번째 회원 총회 개최, 창립 4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이구동성' 개최 번역으로 세상바꾸기 카페 개설 (시민단체 번역 자원활동가 모임) 커뮤니티 에피소드 오픈, 상근활동가 내부 커뮤니티 CUG 도입 홈페이지 전면 개편, 도메인 변경 <a href="http://www.action.or.kr">www.action.or.kr</a> 정보관리 매뉴얼, 문서관리 매뉴얼, 임금규정 등 시민행동 내부 규정 점검 및 개정
2004년	다섯 번째 회원 총회 개최, 후원모임 서각과 대금의 만남전 개최 창립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공개방송 Channel 99.9-다섯살 이야기' 개최 회원 커뮤니케이션과 대외홍보를 위한 주간브리핑, 번두리뉴스 시작 회의자료, 재정보고 등 정보공개자료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시민행동 유리상자 개설
2005년	여섯 번째 회원 총회 개최, 창립 6주년 기념 후원의 밤 '나비효과' 개최 다음(Daum) 블로그 시범 운영, 풀뿌리 네트워크 사이트 구축
2006년	일곱 번째 회원 총회 개최, 창립 7주년 기념 후원의 밤 '시민행동 7대 불가사의' 개최 지역운동 포털사이트 <a href="http://www.humanbelt.net">www.humanbelt.net</a> 오픈 풀뿌리 희망투어, 대화모임 이음(異音) 진행, 대안생활백서 운동 시작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78호)
2007년	여덟 번째 회원 총회 개최, 후원모임 '평생인연-선' 개최 창립 8주년 기념 후원의 밤 '달팽이-시속 0.05km, 세상에 너만큼 빠른 건 없어' 개최 시민단체 총(처)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진행, 홈페이지 전면 개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액션툴즈 프로젝트 시작, 피스라디오 캠페인 진행
2008년	아홉 번째 회원 총회 개최, 다음 희망모금 '티베트 평화운동 지원 모금' 캠페인 시민공간 나루 건립후원 '공감여행 콘서트' 진행 시민공간 나루 건립후원 '어우러져 물길을 여는 나루 서화전시회' 개최 풀뿌리 모금 시상식 수상 (피스라디오 캠페인으로 희망상 수상) 회원·후원인을 위한 감사의 공연 '늑대가 왔다' 개최 마포구 성산동으로 사무실 이전

## 주요 활동

###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개척

시민행동의 회원총회는 연1회, 약 열흘간 인터넷을 통해 열립니다. 총회 사이트, 이메일 브리핑,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보다 많은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즈음해 개최되는 창립기념행사는 회원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적 행사로서 기틀을 잡았고, 후원금 또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부한 개인 후원금이 주를 이루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왔습니다. 뉴스레터 마이캔, 주간브리핑 등 이메일 뉴스레터는 일상적인 단체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밖에도 대화모임 이음(異音), 오픈하우스,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고 실험해 왔습니다.

### 회원, 후원자 기반의 독립적 재정 운영 기반 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 지원과 기업 후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일부 민간재단 협력사업으로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창립 당시 시민행동의 회원은 약 1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사무처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였고, 따라서 초기 2년간은 여러 차례 상근활동가들이 급여를 반납하면서 무급에 가까운 활동으로 단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회원단체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의 고유 활동을 책임있게 하는 한편, 꾸준히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회비납부율이 높은 CMS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1인당 회비 또한 월 1만 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한편 2003년부터는 창립기념 행사를 후원의 밤으로 전환하여 후원자 폭을 넓히고 모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재단 협력사업은 단체 고유활동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시민행동 재정의 회비·후원금 비중이 평균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투명하고 책임있는 단체 운영

시민행동은 창립문서를 포함, 회원총회와 정기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재정보고서는 연간 결산서 뿐 아니라 월별로 현금수지표를 공개하며, 2009년부터는 월별 결산서에 사업별 비용표를 추가하였습니다. 회계는 관련분야 출신으로 전담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는 한편,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 운영과정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00), 소득세 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2006) 등 법제도적 인정을 통해 공신력을 높여왔습니다.

###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재충전과 교육)

기획실은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재충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무처 상근활동가들은 분기별 워크샵과 교육 프로그램, 해외연수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 커뮤니티와 아카이브에서 활동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턴, 자원활동가의 경우 상근 활동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함께 기획하고 활동하는 동료로서 상근활동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정보,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한편 블로그 커뮤니티 에피소드는 시민행동 뿐 아니라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이들이 일상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며 때로 토론을 벌이거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등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왔습니다.

### 창조적인 실험으로 새로운 운동의 과제와 방법을 발굴

인터넷 상에서 더 활발한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주제별, 캠페인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웹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피스라디오 캠페인, 온라인 총회 등 온라인 운동의 모델을 실험하였습니다. 또한 월드넷, 플뿌리네트워크, 페어라이프 캠페인 등 시민운동의 기반을 확장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 주요 성과

2000년 이메일 뉴스레터 마이캔 발행 6개월만에 구독자 3천명 돌파  
2001년 시민단체 최초로 온라인 회원 총회 개최  
2001년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건물 구입 - 시민공간 여울  
2002년 세계시민단체 3,600여개 DB 구축  
2003년 번역으로세상바꾸기 자원활동가 모임 확대  
2003년 커뮤니티 에피소드 오픈  
2004년 홈페이지 점검 및 전면 개편  
2004년 주간브리핑, 번두리니우스, 유리상자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2005년 풀뿌리 네트워크 사이트 구축  
2006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2007년 웹표준을 고려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블로그, 위키 등 외연확대  
2008년 피스라디오 캠페인 & 풀뿌리 모금시상 수상  
2008년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건물 신축 - 시민공간 나루

## 발간 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총회 자료집 (2000년)  
따따 1호, 2호 (경기간행물) (2000년)  
당신이 희망입니다 - 1999-2001 함께하는 시민행동 백서 (2002년)  
시민행동은 지금 사춘기 (영상) (2003년)  
나 우리 함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개 브로셔 (2004년)  
미니다큐시리즈 나비효과 (영상) (2005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개 브로셔 (CD) (2007년)  
달팽이 수첩 - 대안생활캠페인 (2007년)  
시민단체 총(처)장과의 대화 (오디오CD) (2007년)

## 구성

### 기획실 전문위원

위원 : 유수훈((주)D&A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전승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허광봉(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기획실 상근활동가

장상미(기획실장), 박준우(기획팀장), 정홍순(회계), 마웅저, 이기수, 최성인

## 공익소송센터 (2000년 - 2002년)

공익소송센터는 2000년 제도적인 보호가 미흡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익기획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적 상담과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을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해소하였습니다.

### 연혁

2000년	공익소송센터 출범 관세사시행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공동운동본부 참여 집단소송법 제정 연대회의 참여
2001년	5개 완전감자은행 피해주주 집단소송 제기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관련 카드사와 시정조치 합의 송파구청 주민감사청구인 회유사건 관련 구청장등 고발 방송사 사이트 부당약관 개정 요구하여 약관 개정 미술관 소화기기 오작동 피해자 집단소송
2002년	김치냉장고 하자 피해자 집단보상청구로 제조사 보상 실시 광주은행 BW 행사가격 인상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 주요 활동

구성 2002년 해산

#### 투자자소송 - 완전감자은행 피해주주, 광주은행 BW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회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전감자된 은행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2001)을 제기하는 등 소액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공익소송위원회

위원장 : 박헌권(변호사)  
위원(가나다 순) : 강종표(변호사), 권선기(변호사), 김제완(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교수), 김현태(변호사), 문광명(변호사), 박공우(변호사), 이상근(공인회계사), 이자영(변호사), 정미화(변호사), 최병록(서원대 법학과 교수)

#### 소비자소송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응, 김치냉장고 하자 피해보상 등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변하여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관해 부당이득의 사회반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시정조치 실시에 합의(2001)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 소화기기 오작동 피해자 집단소송(2001), 김치냉장고 하자 피해자 집단 보상청구(2002) 등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사무국

최인욱(팀장)

#### 유권자소송 - 관세사시행제도 헌법소원, 감사청구인 회유 구청장 고발 등

정부의 국민 권익 침해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세사시행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2000), 주민감사청구인을 회유한 송파구청장 고발(2001)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공익법제도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법 제정운동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집단소송법 제정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 인터넷 시민학교 (2000년 - 2005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 당시부터 기획된 교육기관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찰적 시민양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초기 약 2년간은 온라인 사이트로, 그리고 이후 4년간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된 후 2005년 12월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2006년 2월에 해산하였습니다.

## 연혁

2000년	인터넷 시민학교 개교 첫 번째 강좌 진행 (3월 - 9월) 두 번째 강좌 진행 (8월 - 10월) 세 번째 강좌 진행 (9월 - 2001년 3월)
2001년	청소년 학교 YAN 오픈 네 번째 강좌 진행 (3월 - 2002년 4월)
2002년	사단법인 설립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사업 다섯 번째 강좌 진행 (4월 - 10월) 여섯 번째 강좌 진행 (11월 - 2003년 5월)
2003년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웹기반 프로그램 '함께' 시범운영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아시아편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 (RTV 시민방송 방영, 시민의 신문 연재)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 2004년 상반기 정기강좌 진행 (11월 - 2004년 5월)
2006년	사단법인 해소

## 주요 활동 (강좌 목록)

- 첫 번째 강좌 (2000년 3월 - 2000년 9월) - 학습과 생활이 만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학교
- 두 번째 강좌 (2000년 8월 - 2000년 10월) - 여름방학 특강
- 세 번째 강좌 (2000년 9월 - 2001년 3월) - 시민사회, 시민성, 시민운동 (시민단체 상근자, 회원, 대학생 대상)
- 네 번째 강좌 (2001년 3월 - 2002년 4월) - 시민사회, 시민성, 시민운동 (관심사별 접근)
- 다섯 번째 강좌 (2002년 4월 - 2002년 10월) - 시민사회, 시민성, 시민운동 (관심사별 접근)
- 여섯 번째 강좌 (2002년 11월 - 2003년 5월) - 민족과 인종, 지역주의, 시민운동사례
- 특별강좌 (2003년 7월 - 10월) -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아시아편
- 일곱 번째 강좌 (2003년 11월 - 2004년 5월) - 평화, 경제, 시민운동 사례

## 주요 성과

2000년 온라인 시민교육 사이트 인터넷 시민학교 운영  
2001년 청소년학교 YAN 운영  
2003년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아시아편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

## 발간 자료

하승창의 NGO이야기 (2001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RTV시민방송, 2003년 9월 개국특집 방영 (2003년)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시민의 신문 연재 (5주간) (2003년)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발제자료집, 녹취자료집) (2003년)

## 구성 (2006년 해산)

### 이사회

이사장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상임이사 : 이진석 (교장 겸임, 부산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사(가나다 순) : 구경화(공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동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모(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김해성(강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박성혁(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혁규(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정문성(인천교대 교수), 하승창(시민행동 사무처장)

### 사무국

정선애(사무국장), 장상미

## 환경적 성과

활동의 특성상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이기는 하나,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페어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알고 있습니다.

### 환경데이터에 대한 주의

2008년 10월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는 환경정의와 함께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물과 전기 사용량은 각 단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고지되어, 시민행동만의 물과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 9월까지의 시민행동의 물과 전기 사용량은 추정된 값이며, 전기 사용에 의한 CO<sub>2</sub> 배출량도 추정치입니다. 사무실 이전 후에는 각 단체별로 사용량이 고지됨에 따라 시민행동만의 환경데이터를 보고하였습니다. 추정치를 사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연도별 변화 추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추정치라도 보고하는 것은 시민행동이 에너지와 물 사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성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원자재 사용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직접 사용하는 원자재는 없습니다. 가공된 원자재중 가장 많은 사용하는 것은 문서와 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종이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행동은 paperless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paperless 정책

각종 회의 시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을 통해 문서를 작성, 저장, 공유,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 우편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우편물이 아닌 E-mail과 SMS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정기 소식지의 경우 블로그와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달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인쇄물로 제작합니다. 반드시 제작하는 종이 우편물로는 연 1회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과 창립기념행사 초청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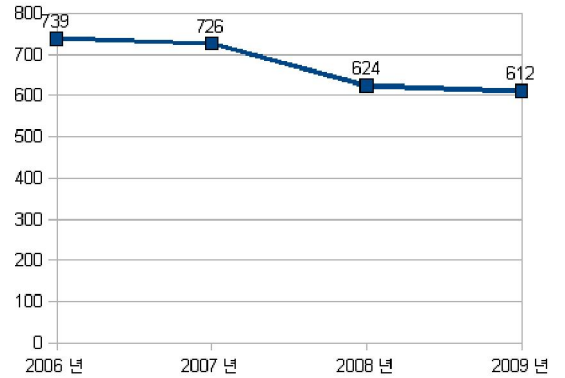
### 에너지 사용량

현재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와 도시가스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전기와 난방유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전 후에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인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 9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은 통합하여 고지됨에 따라 환경정의와 함께 사용한 총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간 총 전기 사용량에 대해 건물 전체 면적 대비 시민행동 사무실 면적 비율(21%)을 산정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사무실 이전 후인 2008년 11월부터의 전기 사용량은 시민행동 사무실에서만의 사용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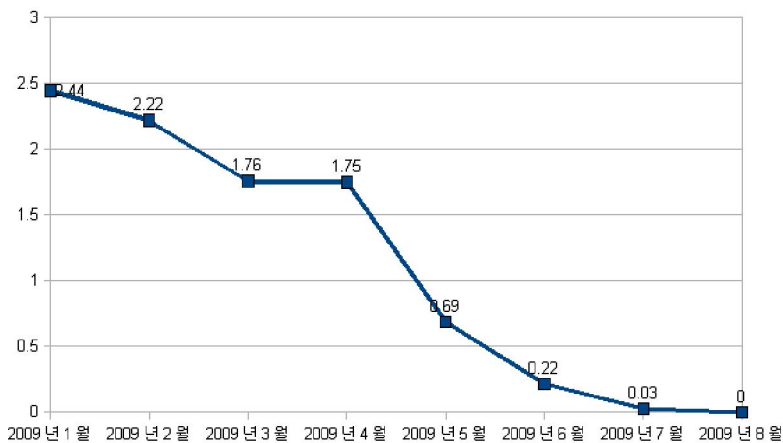
시민행동의 전기 사용량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후,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연간 총 전기 사용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였습니다. 2008년은 사무실 이전 전인 9월까지의 총 전기 사용량을 해당 개월 수로 나뉘었으며, 2009년의 경우 8월까지 총 사용량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하였습니다.



시민행동 월 평균 전기 사용량 (단위 : kWh)

사무실 이전 전에 겨울철에 사용했던 난방유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후 겨울철 난방은 도시가스로 대체되었으며, 단위 면적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정확한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용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후 연간 비교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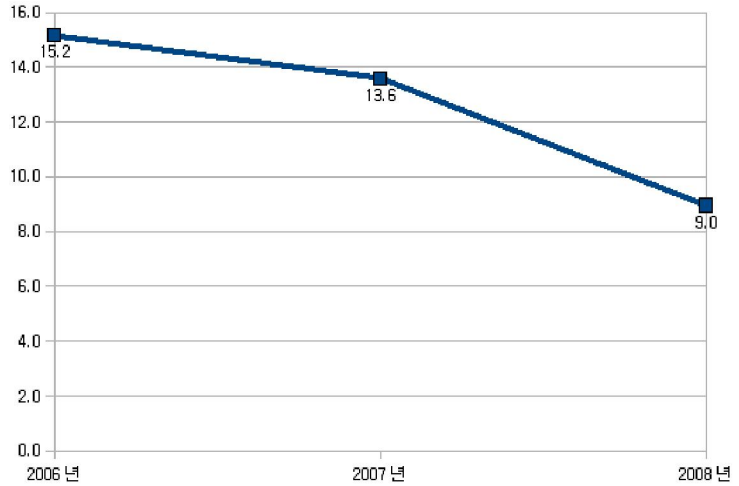
도시가스 사용량 (단위 : m³)



## 물 사용량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후에는 경수기를 설치하여, 식수를 위한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통합 고지되어, 시민행동만의 연간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표는 환경정의와 시민행동의 연간 총 물 사용량을 연평균 상근활동가 수로 나눠 계산한 것입니다. 2008년 값이 낮은 이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10월 이후의 물 사용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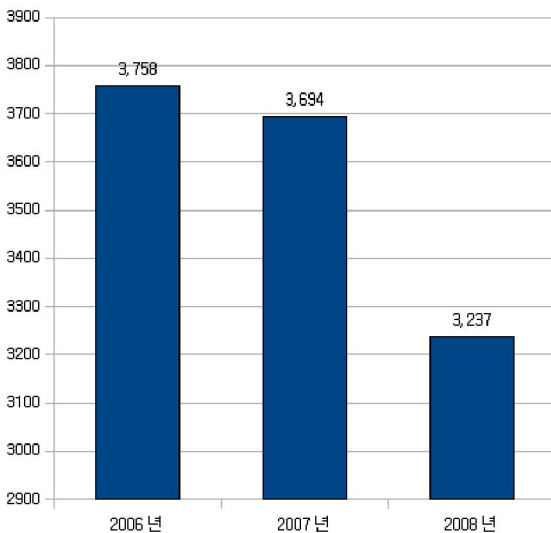


상근활동가 1인당 연간 물 사용량 (단위: m³/명)  
= 연간 물 사용량 / 연평균 환경정의와 시민행동 상근활동가 수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물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했던 생수는 제외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CO<sub>2</sub>입니다. 사무실 이전 전에 사용했던 난방유 등유는 집계가 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이 소유한 차량은 없으며, 상근활동가 개인의 통근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 (단위: kg-CO<sub>2</sub>)

2006년과 2007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 사용에 의한 것이며, 2008년 배출량은 전기와 도시가스(12월분) 사용에 의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 사용량은 추정한 것으로, 이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정치입니다.

※ CO<sub>2</sub> 배출량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지침에 따라 연료별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계산하였습니다. 전기의 탄소배출계수는 0.424 Kg CO<sub>2</sub>/ kWh를, LNG 도시가스의 탄소 배출계수는 0.637 Ton C / TOE를 사용하였습니다.

### 환경을 위한 시민행동의 활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시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부 예산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밀빠진독상 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예산낭비를 이유로 밀빠진독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시화호 방조제 건설과 경인운하 건설 사업, 농림부의 새만금 개발 사업, 서울시의 성산배수지건설 공사에 밀빠진독상을 수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로, 수질오염과 갯벌 파괴,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지역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밀빠진독상을 수여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성미산배수지건설 공사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천 - 페어라이프 캠페인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공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페어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비누, 천연세제, 천연탈취제, 천연화장품 등 친환경 천연제품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생리대만들기, 공정무역 소개, 공정여행하기 등의 활동으로 개인들이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부록

재무제표

수상 실적

검토의견서

GRI Index

함께하는 사람들

부가정보

# 부록 1. 재무제표

## 운영성과표

제9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8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b>I 사 업 수 익</b>	<b>339,440,113</b>	<b>241,869,184</b>	<b>263,681,567</b>	<b>286,948,025</b>	<b>274,577,995</b>
(1) 고유목적사업수입	339,440,113	241,869,184	263,681,567	286,948,025	274,577,995
1. 회비수입	116,152,560	128,666,280	116,595,680	137,690,360	141,948,680
2. 후원금	186,612,530	83,493,914	106,931,887	77,034,330	115,712,955
3. 프로젝트지원금	21,605,000	29,651,990	40,154,000	33,539,300	14,850,000
4. 자료판매수입	67,000	57,000	-	38,684,035	-
5. 연대사업수익	-	-	-	-	2,066,360
6. 캠페인 모금액	14,153,023	-	-	-	-
7. 기타사업수입	850,000	-	-	-	-
<b>II 사 업 비 용</b>	<b>342,196,658</b>	<b>257,559,976</b>	<b>281,871,687</b>	<b>307,939,710</b>	<b>285,774,342</b>
(1)고유목적사업	342,196,658	257,559,976	281,871,687	307,939,710	285,774,342
가. 인건비	198,577,851	186,847,274	195,100,428	195,083,710	185,403,610
1. 급여	183,000,000	171,219,000	180,594,850	181,484,340	176,013,440
2. 퇴직급여	15,577,851	15,628,274	14,505,578	13,599,370	9,390,170
나. 운영비	52,472,756	50,701,242	51,350,146	53,382,913	48,397,801
1. 복리후생비	19,866,360	21,200,465	26,369,276	23,561,488	21,761,110
2. 여비교통비	483,913	2,374,700	40,200	918,300	170,300
3. 대외비	680,020	446,000	353,850	409,000	120,000
4. 통신비	6,481,160	7,503,080	7,246,080	5,134,690	6,191,474
5. 감가상각비	5,896,250	5,590,616	5,825,293	5,785,593	5,691,493
6. 수선비	-	-	-	245,000	632,500
7. 보험료	1,660,930	1,417,990	1,407,200	1,194,810	763,670
8. 운반비	722,000	-	-	93,600	30,000
9. 교육훈련비	290,000	140,000	70,000	4,703,600	1,506,000
10. 도서인쇄비	652,000	302,800	282,000	336,000	704,000
11. 회의비	878,190	344,390	2,145,840	906,540	1,286,620
12. 소모품비	982,090	1,251,710	1,217,220	2,168,860	2,458,810
13. 지급수수료	8,335,146	2,587,840	1,608,948	2,541,902	1,767,610
14. 건물관리비	3,153,947	7,531,651	4,604,239	5,170,530	5,182,214
15. 시스템설치비	1,752,750	-	-	-	-
16. 잡비	638,000	10,000	180,000	213,000	132,000
다. 지원사업비용	4,445,833	3,630,000	7,445,420	25,262,866	19,119,454
1. 시민학교CMS	-	-	1,400,000	9,800,000	7,000,000
2. 연대지원비	2,270,000	2,730,000	2,800,000	5,800,000	4,220,000
3. 연대사업비	2,175,833	900,000	850,000	710,000	1,220,000
4. 시민학교지원금	-	-	2,395,420	8,952,866	6,679,454
라. 행사비용	67,526,780	16,381,460	27,975,693	34,210,221	32,853,447
마. 캠페인진행비	19,173,438	-	-	-	-
<b>III 사 업 이 익</b>	<b>-2,756,545</b>	<b>-15,690,792</b>	<b>-18,190,120</b>	<b>-20,991,685</b>	<b>-11,196,347</b>
<b>IV 사 업 외 수 익</b>	<b>223,200,417</b>	<b>3,402,650</b>	<b>3,366,613</b>	<b>22,773,309</b>	<b>3,835,090</b>
1. 이자수익	15,383	5,690	6,613	1,206	1,690
2. 임대료	2,520,000	3,360,000	3,360,000	3,360,000	3,720,000
3. 기타지원금	7,050,000	-	-	-	-
4. 전기후원물품	8,031,000	-	-	-	-
5. 유형자산처분이익	205,344,034	-	-	-	-
6. 잡이익	240,000	36,960	-	19,412,103	113,400
<b>V 사 업 외 비 용</b>	<b>18,464,898</b>	<b>9,695,298</b>	<b>11,822,383</b>	<b>9,149,010</b>	<b>8,617,328</b>
1. 이자비용	18,259,098	9,695,298	11,822,383	9,149,010	8,617,328
2. 유형자산처분손실	205,800	-	-	-	-
<b>VI 경 상 이 익</b>	<b>201,978,974</b>	<b>-21,983,440</b>	<b>-26,645,890</b>	<b>-7,367,386</b>	<b>-15,978,585</b>
<b>VII 특 별 이 익</b>	<b>1,951,536</b>	<b>-</b>	<b>-</b>	<b>-</b>	<b>-</b>
1. 채무면제이익	1,951,536	-	-	-	-
<b>VI 당 기 순 이 익</b>	<b>203,930,510</b>	<b>-21,983,440</b>	<b>-26,645,890</b>	<b>-7,367,386</b>	<b>-15,978,585</b>

## 부록 2. 수상 실적

일시	기관명	부문	상금
2002년 5월 14일	시민운동지원기금	제7회 2002 한국시민운동상 본상	5,000,000원
2003년 12월 12일	사이버문화연구소, 시민정보 미디어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2003 베스트 커뮤니티	디지털 카메라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기증)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신문	투명사회기여상	없음
2008년 10월 23일	아름다운재단	UBS 풀뿌리모금상 희망부문	6,000,000원

### 한국시민운동상 (2002년)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이 1998년부터 매 년 "사회개혁에 역할을 한 단체, 시민운동이 발전하는데 공헌한 단체, 사회적 공공선에 기여한 단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선정, 수여한 상으로, 시민행동은 2002년 창립 3년 만에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온라인커뮤니티비엔날레 베스트커뮤니티상 (2003년)

바람직한 온라인커뮤니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정보미디어센터와 사이버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SK텔레콤 등의 후원으로 2003년 개최된 온라인 커뮤니티 경연대회입니다. 시민행동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만든 다음 카페 '번역으로 세상바꾸기'가 베스트커뮤니티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디지털카메라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 기증하였습니다.

### 투명사회기여상 (2004년)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만드는 데 일조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반부패국민행동과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상으로, 시민행동은 2004년 예산감시 시민행동 활동으로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풀뿌리모금상 (2008년)

아름다운재단이 2008년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지역의 풀뿌리운동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발성이 돋보이는 모금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모델을 보여주는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를 위해 제정한 상으로, 1차 서류지원과 2차 현장 발표를 통해 시상한 상입니다. 시민행동은 "내 이름을 새긴 피스(PEACE) 라디오 캠페인"으로 희망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부록 3. 검토의견서

### 지속가능보고서 검토의견서

#### 함께하는 시민행동 귀중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부터 2009년 발간하는 이 단체의 지속가능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의 목적은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상의 충실도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차후에 보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 책임 및 독립성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담은 독립적 검토의견서를 제공합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편향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검토 범위 및 방법

본 검토의견서는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 경영 및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보고서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과의 소통 도구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의 충실성을 따질 때는, 'GRI G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주장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검토 결과 및 제언

##### 보고서의 형식

보고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을 결산해 함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출범 10주년을 맞으며 첫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당한 구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의 형식은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외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 보고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항목에 대한 인덱스가 충실하게 작성된 점은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됩니다. 목차 역시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GRI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각 요소를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중요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내·외부의 관심사와 위험도 측면에서 조직 내부의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직의 중요한 이슈를 도출한 뒤 이를 보고하는 통상적 보고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프로필, 선택된 이슈에 대한 경영 방식 및 성과 지표를 GRI G3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2009년 보고서는 10년 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경영 방식 및 성과를 충실히 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고서는 기업 및 다른 시민단체 등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기관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해관계자를 회원, 일반시민, 시민단체, 공익재단, 내부구성원,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므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사이에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이해관계자 사이 이해 상충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등을 향후 보고서에서는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서는 중요 이슈별로 개선 방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고서에서는 시한과 방법을 정해 더 구체적으로 개선 목표 달성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서 가운데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환경적 성과’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은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서는 부정적 환경·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밝혀내는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9월

**HERI**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원재





## 부록 4. GRI INDEX

	지표번호	지표내용	페이지	관련내용
조직개요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선언문	6-7	공동 대표 3인의 선언문 수록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 기술	-	<p>&lt;외부의 영향과 위험, 그리고 기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 증가</li> <li>·시민단체 신뢰성, 영향력 약화</li> <li>·사회운동의 구심력 약화</li> <li>·사회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영향력 확대, 세력화</li> <li>·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위기</li> <li>·성찰의 기회</li> </ul> <p>&lt;내부의 영향과 위험, 그리고 기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악한 재정</li> <li>·불안정한 상근활동가 총원 구조</li> <li>·시민행동 활동의 영향력 감소와 의제의 전문화</li> <li>·시민행동 활동의 주체와 의제에 대한 성찰</li> <li>·전문 운동 분야는 깊이 있게, 저변을 확대하는 운동 분야는 넓게</li> </ul>
조직 프로파일	2.1	조직 명칭	8	<p>한글명 : 함께하는 시민행동 (약칭 '시민행동')</p> <p>영문명 : Citizens Action Network (약칭 'CAN')</p>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12	<p>&lt;시민행동 규약상 목적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참여 사업</li> <li>·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li> <li>·자발적인 시민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하는 사업</li> <li>·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li> </ul> <p>&lt;주요 활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감시운동 : 밀빠진 독상,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예산낭비우려사업 선정, 주민참여제도·참여예산제도 도입 활동 등</li> <li>·정보인권운동 : 프라이버시보호운동, 정보접근권, 포털이용자운동, 정보트러스트, 인터넷실명제반대운동</li> <li>·기업감시운동 : 특수고용노동자실태조사, 비정규직 대응, 지속가능경영 연구, CSR의 극과 극</li> <li>·대안생활운동 : 페어라이프 캠페인, 대안생활백서</li> </ul>
	2.3	주요 사업부서와 조직 구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구조 : 회원총회 - 공동대표 - 운영위원회 - 사무처</li> <li>·주요부서 : 예산감시시민행동, 정보인권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정책실, 기획실</li> </ul>
	2.4	본부 소재지	5	121-847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2.5	영업하는 국가,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는 주요 국가	5	한국. 기타 국가에 별도의 사업장은 없습니다.
	2.6	소유구조 및 법적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단체</li> <li>·비영리 조직 (서울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li> <li>·회원 조직 (회원의 회비·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회원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조직)</li> <li>·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li> </ul>
	2.7	제품 및 서비스 대상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수혜 대상은 회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li> <li>·정부와 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li> </ul>
	2.8	보고 조직의 규모	10	·인적 구성 : 회원 1,016명, 공동대표 3명, 감사 2명, 고문 2명, 운영위원 24명, 상근활동가 13명 (2009년 8월 현재)

				·재정 규모 : 총수입 562,640천원, 총지출 360,661천원 (2008년) ·주요 활동 : 예산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좋은기업만들기운동, 대안생활운동
	2.9	보고 기간 중 중대한 변화	-	<p>&lt;사무실 이전&gt;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 -&gt; 서울 종로구 가회동 (2000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 -&gt; 서울 성북구 삼선동 (2001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 -&gt;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8년)</p> <p>&lt;규약 개정&gt;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여섯 차례 개정</p> <p>&lt;활동기구 해산&gt; ·인터넷 시민학교(2005년 활동 종료), 공익소송센터(2002년 활동 종료)</p>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91	<p>·2002년 제7회 한국시민운동상 본상 (시민운동지원기금) ·2003년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2003 베스트 커뮤니티 (사이버문화연구소, 시민정보미디어센터) ·2004년 투명사회기여상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신문) ·2008년 UBS 풀뿌리모금상 희망부문 (아름다운재단)</p>
보고 변수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 대상 기간	5	1999년-2008년 (출범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보고)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	최초 발간
	3.3	보고 주기	-	2009년 이후 매년 발간 예정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 문의처	5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Tel : 02-921-4709 E-mail : action@action.or.kr
보고 범위 및 경계	3.5	보고 내용 결정 프로세스	18-19	<p>·2008년 보고서 발간 TFT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회원, 웹회원, 시민단체, 공익재단, 임원, 상근활동가, 인턴 등)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개 영역 설정 ·영역별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에 대해 위험 측면, 성공 측면, 규제 측면, 시민단체 측면에서의 중요성 분석 ·중요성 분석에 의해 선정된 이슈에 대해 내부 관리 및 전략의 유무, 데이터 관리 유무, 담당부서의 유무, 정보공개 필요성에 의해서 보고 내용 결정 ·중요 이슈는 아니더라도 시민행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도 포함하여 보고</p>
	3.6	보고 범위	5	보고 범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에 국한함.
	3.7	보고 범위의 구체적 제한 사항	5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별도로 국내외 지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해당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고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8	합자회사, 자회사, 외주 등	5,10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이후, 2000년 인터넷 시민학교를 설립하여 2002년 사단법인화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활동을 종료하고, 2006년 2월에 해산하였습니다. 그 밖에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거나 외주화하는 등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3.9	정보의 측정 기법과 계산 기준	-	GRI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부는 시민행동 내부의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3.10	이전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 효과 및 사유	-	첫 발간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변화	-	첫 발간으로 범위, 경계, 측정 방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GRI	3.12	GRI Index	94-104	부록에 GRI Index 기재

대조표				
검증	3.13	검증	92-93	보고서의 내용과 데이터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내부의 사무처와 운영위원의 검토를 거쳤으며, 한겨레경제연구소의 독립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배구조, 책임, 참여

지배구조	4.1	조직의 지배구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는 회원총회 - 공동대표 - 운영위원회 - 사무처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li> <li>·회원총회 :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li> <li>·공동대표 : 대외적으로 시민행동을 대표합니다. 3명의 공동대표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li> <li>·운영위원회 : 시민행동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집행하는 상설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 실·국장입니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원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현재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는 조직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시 설치하며, 현재는 상임운영위원회가 운영중입니다. 운영위원 중 사무처의 상근활동가 6명만이 상근이며, 18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li> <li>·사무처 : 시민행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무그룹으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li> </ul>
	4.2	운영위원장의 임원 겸직 여부	-	규약상 공동 대표 3인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근인 공동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4.3	독립적인 운영위원 비율 (선출직, 비상근 운영위원 비율)	45-46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09년 8월 현재 당연직 운영위원은 8명, 선출직 운영위원은 18명으로, 선출직 운영위원 비율은 62.5%입니다. 또한 사무처의 상근활동가 운영위원만이 상근하고 있으며, 기타의 운영위원은 비상근입니다. 상근운영위원 비율은 24명중 6명으로 25%입니다.
	4.4	회원과 상근활동가가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매커니즘	1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 개진은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원의 참여는 부족한 편입니다.</li> <li>·사무처의 책임자급인 사무처장과 실·국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사무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처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이며, 또한 상근활동가는 실무를 집행하는 만큼, 조직의 현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4명의 운영위원 중 상근활동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li> </ul>
	4.5	운영위원과 사업단위의 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의 연계	49	상근활동가를 제외한 운영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장, 그리고 공동대표 등 임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6	운영위원회 내 이해관계 충돌 방지 프로세스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행동 활동의 독립성 침해 금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li> <li>·운영위원은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li> <li>·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위원이 다른 업무 수행으로 시민행동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li> <li>·운영위원의 정당 가입은 자유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li> </ul>
	4.7	운영위원의 자격과 전문성 결정 프로세스	45,48	운영위원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 활동 기구에 참여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후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승낙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합니다. 현재의 운영위원들은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	조직의 비전, 미션, 가치	9	·비전 :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미션 :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느리지만 즐겁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 자율, 자치, 책임, 투명, 인권, 조화, 공정
	4.9	운영위원회가 성과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하는 절차	-	운영위원회는 시민행동 전반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이 필요한 주요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연간 4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격주 단위로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50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과 회의록은 시민행동 문서보관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4.11	사전 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	시민행동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가 조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구성원간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전담 상근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사무처장과 기획실장의 승인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내역도 cug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체 상근활동가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전문가가 매년 1회씩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만날 경우, 전체 사무처에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함께 점검하고 윤리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12	현장이나 원칙 등에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	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외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거나 지지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해 내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협약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4.13	협회 등에 대한 가입 현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설립될 때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14	이해관계자 목록	14	시민행동은 회원(후원인), 일반시민, 시민단체, 공익재단, 내부구성원(임원, 상근활동가, 인턴, 자원활동가),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을 이해관계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4.15	이해관계자 선정 기준	14	시민행동의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을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16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방식	15-17	해당 페이지 참고
	4.17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주요 이슈 및 대응	18-20	해당 페이지 참고
경제적 성과				
경제성과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90	·함께하는 시민행동 연간 수입 지출 현황 (단위:만원)

				<table border="1"> <tr><th>구분</th><th>2008</th><th>2007</th><th>2006</th><th>2005</th><th>2004</th></tr> <tr><td>수입</td><td>33,944</td><td>24,186</td><td>26,368</td><td>28,694</td><td>27,457</td></tr> <tr><td>지출</td><td>34,219</td><td>25,755</td><td>28,187</td><td>30,793</td><td>28,577</td></tr> </table> <p>·세금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영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세법에 의해 단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활동가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p> <p>·기부금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의 후원행사에 매년 일정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만원)</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2008</th><th>2007</th><th>2006</th><th>2005</th><th>2004</th></tr> <tr><td>기부금</td><td>227</td><td>273</td><td>280</td><td>580</td><td>422</td></tr> </table> <p>버마민주화운동가인 마웅저를 상근활동가로 채용하기 전에 후원자를 조직하여 그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p> <p>·이자비용 :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차입하여, 매년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위:만원)</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2008</th><th>2007</th><th>2006</th><th>2005</th><th>2004</th></tr> <tr><td>이자</td><td>1,826</td><td>970</td><td>1,182</td><td>915</td><td>862</td></tr> </table>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수입	33,944	24,186	26,368	28,694	27,457	지출	34,219	25,755	28,187	30,793	28,577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기부금	227	273	280	580	422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이자	1,826	970	1,182	915	862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수입	33,944	24,186	26,368	28,694	27,457																																									
지출	34,219	25,755	28,187	30,793	28,577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기부금	227	273	280	580	422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이자	1,826	970	1,182	915	862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86-87	<p>기후 변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정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활동에 있어서의 위험과 기회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후변화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작은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p> <p>또한 '페어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p>																																										
	EC3	연금 지원 범위	54	<p>·퇴직급여 충당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다 안전한 소득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p> <p>·국민연금 가입 상근활동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버마민주화운동가 마웅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36	<p>·독립재정 : 시민행동은 민간재단 등 공익기금의 사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기업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비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기금에 연연해 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고유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창립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이런 원칙을 마련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p> <p>·세금감면 혜택 : 정부와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으나,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의 세제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2008년 건물 취득 시 비영리 단체로 인정되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p>																																										
시장 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53	<p>·급여체계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급여 체계는 기본급 70만원에 호봉, 근속수당, 직책수당(팀원/팀장 10만원, 실국장 20만원, 사무처장 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신입활동가를 포함하여 모든 상근활동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p>·최저임금이상 지급 : 연령 등으로 월 급여액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법정최저임금대비 : 2009년 현재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83만 6천원입니다. 시민행동은 주당근로</p>																																										

				시간이 35시간이며, 시민행동의 법정최저임금은 74만4천원이 적용됩니다. 신입 상근활동가는 기본급 70만원에 직책수당 10만원, 그리고 연령에 따른 호봉이 적용되어 8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업장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으며, 모든 구매는 국내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규모 구매는 없으며, 별도의 구매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57-58	·채용절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모집·채용 시 합리 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인성과 직무능력,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처 이외에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합니다. ·상근활동가 구성 현재 13명의 상근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버마 출신 활동가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접 경제 효과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1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등과 함께 사무실 이전을 위해 건물을 마련하면서, 해당 건물이 위치한 성미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지하에 조그마한 공연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성미산 마을에서 '성미산 마을 극장'으로 개관하여, 콘서트, 연극,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위치한 5층에는 약 4평 규모의 회의실을 다양한 시민모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오픈하였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상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시민단체 정보를 모은 월드넷, 번역자원활동가 모임 번세바, 시민운동가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액션툴즈 등이 있습니다.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64-83	시민행동의 사업(활동) 성과 참조
환경				
자재	EN1	원료 사용량	84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원자재는 각종 문서와 서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행동은 paperless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을 통해 문서를 저장·열람하며, 회의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우편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우편물이 아닌 e-mail 소식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재생된 원료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에너지	EN3	직접 에너지 소비량	85	현재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와 도시가스입니다. 2008년 사무실 이전 전에는 겨울용 난방유를 사용하였으나, 이전 후 도시가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N4	간접 에너지 소비량	85	
	EN5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	운영상 효율성이 개선되어 절감된 에너지량은 없습니다.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	상근활동가 대다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특

		(출장, 통근)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 출장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물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86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이전 후, 수도물을 경수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대신, 생수는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N9	취수로부터 영향받는 용수 공급원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은 식수와 세척으로 사용되어 재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물 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와 크기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소재한 곳은 환경 보호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보호 구역이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87	시민행동의 활동이 자연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환경파괴 사업에 밀착된 독상을 수여하고 중단을 촉구하면서 자연 보호 서식지의 파괴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전략이나 조치는 없습니다.
	EN15	사업영향 지역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 지정 멸종위기 종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	시민행동 소재지에 멸종 위기 종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출물, 폐수, 폐기물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86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 도시가스, 난방용 등유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	통근이나 출장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 배출은 시스템화되지 않아 집계할 수 없습니다.
	EN18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성과	-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성과는 특별히 없습니다.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오존층 파괴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없습니다.
	EN2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시민행동이 배출하는 폐수는 생활하수로, 배출량과 수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정책에 따라 분리 수거 후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데이터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N24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배출된 폐기물의 비율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N25	폐수 배출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품 및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활동의 성과는 없습니다.

		감활동과 성과		
서비스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판매된 제품 및 포장재의 재사용은 없습니다.
법규준수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환경법규 위반으로 벌금, 그 외에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영향	-	제품 운송은 거의 없으며, 임직원 이동시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과 투자는 없습니다.

노동

	LA1	고용 현황	45,51	<p>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운영위원과 상근활동가, 그리고 자원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p> <p>운영위원과 자원활동가는 모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영위원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사업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하고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도 몇 주 혹은 몇 개월 단위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p> <p>상근활동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람들로, 2009년 8월 현재 1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p> <p>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상근활동가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상근활동가는 모두 정규직으로, 10명은 전일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은 주 5일 중 2-3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p> <p>상근활동가의 남녀, 연령, 근속기간에 따른 분포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p>
고용	LA2	이직	62-63	<p>창립 이후,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근활동가 규모는 15명 내외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퇴직한 상근활동가는 총 20명으로 전직과 학업,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그만두었습니다.</p> <p>연평균 약 2명 정도의 상근활동가가 퇴직하고 있으며, 통계청 기준(당월퇴직자수/전월말재직자수)에 의한 퇴직율은 1.28%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GRI 기준(당해연도 총 퇴직자수/당해연도말 재직자수)에 의한 퇴직율은 14.61%입니다.</p> <p>연도별 퇴직인원, 퇴직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p>
	LA3	상근직에 대한 복리후생	54	<p>Full-Time 상근활동가와 Part-Time 상근활동가간에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상근활동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p> <p>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근활동가에 대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법정 퇴직금 제도 설정,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학업휴직, 안식년제도, 리프레쉬 휴가제도 등이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수혜 실적은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p>
	LA4	단체교섭 적용 비율	58	<p>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상은 없으며 체결된 단체협약도 없습니다.</p> <p>임금과 근로조건 등 상근활동가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체 상근활동가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p>
노사관계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최소통보기간	57	<p>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p> <p>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p> <p>그동안 사업 부서인 인터넷 시민학교와 공익소송센터가 각각 2005년과 2002년에 해소시 전체 상근활동가의 논의와 합의 속에 진행되었으며, 담당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사업단위로 전환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p>



				니다.
보건안전	LA6	노사보건안전위원회	53	상근활동가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근활동가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 검진 등 상근활동가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전체 상근활동가의 논의를 통해 다루지고 있습니다.
	LA7	산업재해	54	업무의 특성상 업무상 질병과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업무상 질병과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은 0입니다.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한 프로그램	-	심각한 질병에 관해 상근활동가와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LA9	노조와 정식협약을 맺은 보건안전사항	-	현재 노동조합이 없으며, 보건안전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도 없습니다. 보건안전 등 상근활동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전체 상근활동가의 논의로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상근활동가의 보건안전을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교육훈련	LA10	직원 형태별 1인당 교육시간	-	상근활동가 교육 시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향후 상근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조직의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55-56	시민운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평균 연 1회 내부의 요구와 제안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학습과 활동 평가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과 개인이 요청하는 외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시 휴직제도를 마련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시민운동 경험을 위해서 동등하게 해외 연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도 상근활동가의 재충전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유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대상 직원 비율	-	매년 말 전체 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함께 논의합니다. 상근활동가의 경력개발을 위해 장학금 혜택이 부여된 교육 기회가 있을 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LA13	운영위원회와 상근활동가 구성 현황	46-47 51-52	현재 24명의 운영위원과 13명의 상근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운영위원중 여성은 5명으로 21% 수준입니다. 상근활동가 중 여성은 6명으로 46%입니다. 운영위원과 상근활동가 중에 장애인은 없으며, 버마 출신의 상근활동가 1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53	모든 상근활동가는 동일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를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급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모든 상근활동가가 70만원으로 동일하며, 호봉과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급여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및 조달관행	HR1	인권을 고려한 투자협약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권을 고려한 투자 협약도 없습니다.
	HR2	인권을 고려한 주요 계약업체 선정	-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4개 단체는 건물의 보안과 유지·보수를 위해 세 곳(보안, 엘리베이터 관리, 청소)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인권 등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HR3	업무와 관련한 직원 인권 교육	9	시민행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시민행동의 모든 활동은 인권 존중 기반에서 이뤄집니다. 인권은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며, 인권존중 원칙은 시민행동의 운영원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인권 이슈, 노동인권 이슈는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은 활동 속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p>펼치고 있습니다.</p> <p>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노동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p> <p>인권 교육 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p>
차별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조치	57	<p>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급여, 교육,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p> <p>창립 이후, 현재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p>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의 자유	58	<p>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p> <p>창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3권 침해로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p>
아동노동	HR6	아동노동 금지	57	<p>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p> <p>다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특성상 시민운동에 대한 경험과 배움을 위해 청소년이 방문하여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p>
강제노동	HR7	강제노동 금지	57	<p>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자율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p>
보안관행	HR8	인권 교육을 받은 보안담당자 비율	-	<p>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채용된 인력은 없습니다. 건물과 사무실 보안은 외부 업체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p>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	<p>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p> <p>2008년 4개 단체가 사무실 신축 시, 인근 주민이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보상하였으며, 한 건의 민원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p>
지역사회	SO1	사회영향평가 실시	-	<p>2008년 4개 단체가 건물 신축 시, 해당 건물이 위치한 성미산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p> <p>초기 4개 단체의 사무 공간 마련으로 출발하였으나, 성미산 마을에서 문화공간 마련을 요청하였고, 검토 후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에 조그마한 공연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장은 현재 성미산 마을에서 '성미산 마을 극장'으로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p> <p>설계 변경으로 건축 비용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4개 단체는 마을 주민들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관계를 넓혀가며, 또한 주민도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등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것을 기대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부패	SO2	부패 위험이 있는 사업단위 분석	-	<p>반부패 원칙은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 원칙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의 자산을 횡령, 유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p> <p>또한 시민행동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부정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p> <p>시민행동은 부패 위험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 속에서 반부패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사전에 사무처에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위해 회계 전담 상근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사무처장과 기획실장의 승인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내역도 cug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체 상근활동가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전문가가 매년 1회씩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p>
	SO3	반부패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p>반부패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p>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창립 이후 부패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정책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수립과 정예의 참여	15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성명과 논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공동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SO6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부	9,49,58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당 및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 위원과 상근활동가 개인의 정당 가입은 금지하지 않으나, 평의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경쟁저해 행위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	부당경쟁 및 독점 행위로 공경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규준수	SO8	법률 및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	법률 위반 등으로 단체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시민행동의 활동은 라벨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32-35	2009년 1-2월에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메일과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민행동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 홍보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발송함으로써 스팸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등의 모금 활동을 할 때도 기부금품모집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마케팅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시민행동은 2000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2000년 2월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최초)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문제로 제기된 불만은 없습니다.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법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1999-2008)는 GRI의 G3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적용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A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자체선언 하였습니다. 외부 지속가능경영 전문 기관인 한겨레경제연구소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쳤으나 보고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적용레벨		C	C+	B	B+	A	A+
표준공시안	G3 프로필 공시 결과물 OUTPUT	보고 항목: 1.1 2.1 - 2.10 3.1 - 3.8, 3.10 - 3.12 4.1 - 4.4, 4.14 - 4.15		C레벨 모든 항목의 보고에 추가하여 보고: 1.2 3.9 - 3.13, 4.5 - 4.13, 4.16 - 4.17		B레벨 요구사항과 동일	
	G3 경영방식 공시 결과물 OUTPUT	필요치 않음	외부검증 보고서	지표범주별 경영방식 공시	외부검증 보고서	지표범주별 경영방식 공시	외부검증 보고서
	G3 성과지표, 산업가이드 성과지표 결과물 OUTPUT	경제, 사회, 환경에서 최소한 가지씩을 포함하여 최소 10가지 성과 지표에 관한 보고		경제, 환경 인권, 노동, 사회, 제품 책임에서 최소한 가지씩을 포함하여 최소 20가지 성과 지표에 관한 보고		a) 지표에 관한 보고, b) 누락에 대한 이유설 명 중 하나를 통해 중요 성 원칙과 관련된 핵심 G3와 산업가이드* 지표 각각에 대한 보고	

\*산업가이드 최종 버전

## 부록 5. 함께하는 사람들

### 함께하는 사람들 (2009년 8월 현재)

#### 회원

##### 1999년 가입 회원 : 40명

강대근 권기성 김광한 김선구 김영홍 김주일 김지영 김현철 문광  
승 박순정 박현권 백현석 신성희 신종철 엄혜숙 오관영 유재현  
윤영진 이석주 이승주 이영면 이준성 이필상 장문경 정금채 정란  
아 정선에 정성훈 정창수 조경만 조양호 조재환 지태홍 천호선  
최원호 하승창 한민호 한선우 홍정혜 황언구

##### 2000년 가입 회원 : 102명

감정규 강문수 강미화 곽 현 권순호 권오구 권정호 권혁노 김경  
곤 김구섭 김귀성 김기상 김명선 김민영 김방희 김병기 김성욱  
김성욱 김성주 김애지 김명영 김영재 김용기 김인선 김재훈 김제  
완 김중성 김진영 김진필 김청희 김태웅 노정현 박광신 박근서  
박기영 박노철 박동성 박미라 박성현 박영자 박윤배 박재홍 박종  
길 배성복 배정희 백미정 백형철 서경아 성기수 성시윤 송용실  
송호진 신남희 신준수 신철영 심재민 엄삼용 오정은 오치원 오혜  
근 유수훈 윤여진 윤우중 윤원지 이광렬 이문구 이민우 이병선  
이상근 이상일 이상현 이상희 이수영 이수인 이수현 이순모 이용  
선 이재원 이재울 이정웅 이지연 이창용 이효영 임창완 장경형  
전미라 전 원 전호관 정미화 정병현 정상은 정연욱 조남준 조효  
식 진희선 채준배 최동민 최인욱 최진혁 함병훈 허 옥 홍주연

##### 2001년 가입 회원 : 126명

강인재 강종표 강태훈 강희중 구정화 권영수 권태근 김경복 김광  
수 김달수 김두석 김명섭 김무진 김상열 김상열\_2 김상욱 김성욱  
\_2 김성중 김영춘 김용남 김용민 김용석 김 옥 김운호 김 웅  
김원태 김은영\_2 김주훈 김준기 김차환 김천식 김태선 김태열 김  
행선 김현삼 김형식 김형진 김황중 동영수 박기범 박선호 박수복  
박신준 박용희 박원규 박종운 박준우 박항수 박현태 배유현 배지  
원 백종린 백중서 변진수 서승혁 손승현 송미옥 송영길 송윤석  
신무섭 신의섭 신태중 안수찬 안진길 양용희 양윤정 오무석 오희  
근 위성신 유경희 유남석 유승규 유영석 유정무 유홍은 윤영학  
윤희경 이근철 이덕하 이명신 이상수 이성연 이승우 이역진 이영  
일 이정선 이종오 이주섭 이준엽 이진영 이한일 이현규 이호권  
임규용 장미경 전종출 정근봉 정무성 정미애 정재원 정재훈 조  
균래 조병훈 조선희 조영달 조용욱 조정관 조진호 조철현 조한준  
최경주 최병진 최연경 최영후 최은정 최일범 최진섭 한경수 한규  
정 허광봉 현석환 홍용표 황병국 황성택 황순현 황진구

##### 2002년 가입 회원 : 118명

강성식 강진영 강혜영 구본권 권달중 권순범 김광석 김광이 김근  
동 김기영 김대은 김동노 김동현 김명석 김명식 김보영 김상배  
김상진 김석진 김영중 김용균 김재준 김중문 김지은 김지홍 김진

래 김태성 김 현 김현아 김현철\_2 김형태 마성배 맹주상 문기화  
민경배 박경도 박공우 박관우 박록삼 박선용 박선희&배선장 박성  
훈 박세진 박연조 박인찬 박준범 박중곤 박찬임 배건욱 배연주  
서용탁 손승호 손희준 송익환 안준익 안현수 양애리아 오기석 오  
동균 오세현 오정혜 위지량 유성현 유영룡/우주피아 유창선 윤문  
상 윤보근 윤창국 이규진 이근복 이만석 이문영 이병조 이빈파  
이석우 이성선 이제학 이진희 이철남 이충민 이현구 이혁규 이혜  
연 이혜영 이호준 이홍균 임의빈 장상미 장성순 장성태 전용진  
정 권 정문성 정상용 정은주 정의선 정재현 정지호 정혜선 조선  
국 조성대 조윤준 조제만 조형준 조형진 지현스님 천규승 첼로전  
산 최방식 최소영 최은미 최재형 한상엽 한승철 한영준 허수경  
황성낙 황인성

##### 2003년 가입 회원 : 146명

강구덕 강성관 강성호 강옥희 강혜숙 고정현 권이선 권준오 김경  
도 김경화 김경희 김광현 김동규 김동하 김상일 김석은 김선화  
김선화\_2 김소영 김순홍 김 신 김영래 김영범 김영준 김용환 김  
인숙 김장전 김재만 김중욱 김지영\_2 김창섭 김춘석 김태일 김태  
정 김현록 김현일 김혜련 김환기 라영재 류기수 류 진 모인환  
문경상 문준환 박경태 박노식 박동규 박번순 박상영 박성규 박영  
미 박윤정 박진한 박찬호 배수현 변광무 서진석 손광석 송경용  
송인식 송중근 신용근 신 철 신철호 안대균 안병현 안재홍 안정  
애 안종범 양세진 양중호 엄일용 오상윤 옥창석 유동균 유연경(유  
지연) 윤명권 윤성이 윤인호 윤종철 이경은 이동현 이명수 이무성  
이미숙 이병훈 이상민 이상성 이상훈 이수복 이수정 이순호 이승  
만 이승일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 이용혁 이의환 이재훈 이종선  
이중환 이지연\_2 이지영 이철규 이철원 이호선 임배근 임영환 장  
경호 장민수 장혜정 전병선 전상희 전문석 경감자 정명희 정순철  
정인숙 정현기 정홍구 조광래 조남운 조세홍 조원일 주하나 진미  
애 진우진 차승렬 차혁렬 최동욱 최락선 최사라 최연희 최일웅  
최장혁 최재범 최 철 피소현 하경주 하상욱 한병주 한진숙 한홍  
주 홍성일 황주섭

##### 2004년 가입 회원 : 91명

Ada Im(任將達) Jou, Yi-Cheng(周奕成) 강대선 강보형 권순화  
김기수 김기완 김동준 김동훈 김석준 김수익 김수정 김수중 김순  
배 김 신\_2 김영선 김영태 김윤민 김경열 김종민 김지연\_2 김  
철 김태용 김항섭 김현주 김현태 남영민 류홍빈 마웅재 맹수호  
문병욱 박명숙 박미나 박보람 박승인 박용규 박은실 박준영 박진  
선 백성광 백현석 변정주 석경옥 성재기 양은정 유대근 유진년  
윤덕현 윤여진\_2 이규원 이근호 이민규 이병국 이상미 이상민\_2  
이상엽 이슬기 이유리 이은성 이재상 이경순 이지현 임규철 임시  
현 임인기 임종욱 장석우 장승희 장윤정 전길영 정병우 정은영  
정 철 정철수 정철중 조영훈 조재원 주정호 지승훈 차승돈 채연

하 채정하 최보람 최윤정 최정혜 하재민 하태경 한경숙 한동건  
한외숙 황영희

### 2005년 가입 회원 : 124명

강서형 강수진 강한주 곽태영 권오현 권향년 김건중 김경순 김광  
진 김광호 김근식 김기태 김다희 김래규 김명숙 김미희 김병철  
김봉규 김상미 김상백 김상봉 김상욱\_2 김상호 김성자 김성준 김  
성훈 김영순 김영호 김용철 김정희원 김계남 김중승 김지아 김지  
한 김태진 김태환 김학준 김희수 남동우 남효정 도규상 류현숙  
문대성 문선주 박기환 박동진 박병무 박상민 박석준 박선계 박선  
영 박수호 박원식 박재범 박재영 박종하 박찬근 박채순 박춘규  
박치득 박혜은 방대욱 배경열 배재우 삼정해운 성규현 송성배 송  
현중 안대권 안정자 양재석 양화웅 오영희 오혜련 왕수용 우정제  
윤재학 윤정숙 이경미 이경직 이규승 이대수 이무섭 이미숙\_2 이  
상현\_2 이선주 이수자 이용훈 이우재 이종환\_2 이지연\_3 이효영  
임진형 장공민 전상우 전성민 전해영 정경미 정지희 정태호 정홍  
상 조승만 조찬우 조현철 주미진 주성진 진언선 최경애 최대운  
최병철 최수만 최양숙 최은영 최정신 최준호 하승수 한명숙 함정  
남 허 정 허 찬 홍용표\_2 홍경숙 홍종명 황준규

### 2006년 가입 회원 : 113명

가치창조 강래곤 강선희 강순희 강승원 강장목 강제상 고은경 곽  
민형 구분준 구분현 김광충 김동엽 김동운 김미란 김병하 김본겸  
김성규 김성진 김승연 김연정 김영규 김영두 김영수 김용훈 김은  
정 김익수 김인정 김종범 김준섭 김준수 김지연 김진욱 김학순  
김학원 김현동 김현숙 김희경 남상기 남우근 류휘중 문인영 민병  
덕 박승문 박유찬 박은철 박창규 박현진 박혜준 백승렬 서영균  
서영조 서은주 설규주 성상현 손치훈 송경재 심재현 양성열 양승  
해 양호철 염주노 염창용 유경희\_2 유소영 유 경 유혁상 유형준  
윤후덕 이경훈 이근수 이미희 이병우 이상석 이상선 이선아 이선  
우 이성화 이유진 이재정 이지연\_4 이진성 이효정 임세열 임효진  
장근영 전상직 전상현 전승우 정기호 정승희 정충식 정홍순 조대  
희 조명욱 조혜경 차인순 최강문 최수욱 최승룡 최승우 최용석  
최인호 최창수 하승우 한영석 한용현 함상원 홍길동 홍성희  
홍은정(황학익) 황은희 황재권

### 2007년 가입 회원 : 58명

권난실 권영진 김건우 김규환 김도혜 김백수 김 송 김원재 김재  
관 김재훈\_2 김정희 김종열 김지경 김지숙 김지혜 김현석 모영동  
문경아 문형래 박관영 박재욱 박종택 박진서 박항주 박현욱 방준  
현 배태진 서윤원 서태영 성시경 신규승 신경수 양희철 옥성만  
유병승 유성경 유현숙 윤봉구 윤정하 윤종일 이강근 이동영 이수  
미 이은애 이혁재 임장원 정애란 정우진 조운재 채홍호 최병엽  
최아영 최영식 최윤철 최화연 허남철 홍경표 홍창훈

### 2008년 가입 회원 : 52명

강국진 강석반 강희영 고영삼 고재희 곽승호 김기수\_2 김래환 김  
범진 김병준 김성준\_2 김영모 김은성 김재근 김준우 김형보 류시  
석 박광운 박상준 박설경 박연호 박재선 백선익 서현석 신승남  
신임숙 심광일 심우석 양이현경 양재익 오항식 옥미애 위금숙 윤  
오영 이선경 이선욱 이정술 이천환 이현진 이화정 정경호 정공주  
정연주 정창수\_2 정효민 최덕희 최소잔나 최혜영 추장민 한경희  
한자원 함의영

### 2009년 가입 회원(8월말 현재) : 46명

강상만 고은준 권오경 김류원 김성래 김영현 김정환 김종현 김춘  
석\_2 김택주 김형연 나성수 박상민\_2 박수익 박정기 박종민 박  
효경 변창훈 서준혁 송중운 심봉구 엄형철 우미혜 유승철 유진원  
이기수 이동건 이수강 이재영 이정아 이주리아 이충재 이현수 임  
상엽 장준성 정해천 차태훈 최명수 최성인 최태호 최흥배 하성화  
한선혜 홍원경 홍원표 황승일

### 공동대표 (3명)

지 현 : 조계종 제16교구 청량사 주지,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  
 윤영진 :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前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박현권 :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前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위원장

### 감사 (2명)

김영모 : 변호사, 변리사, 김영모 법률사무소  
 조승만 : 공인회계사, 신성회계법인 감사본부

### 고문 (2명)

이필상 : 상임고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前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상용 : 변호사, 前 시민행동 공동대표

### 운영위원 (24명)

강장목 :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구정화 : 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김경복 : 공인회계사, 일신회계법인, 前 시민행동 감사  
 김영수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영홍 :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은정 :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재훈 :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김태일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감시위원장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정보인권위원장  
 민병덕 :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신태중 : 시민행동 좋은기업국장  
 신철호 : (주) 포스닥 대표이사  
 오관영 : 시민행동 사무처장  
 유수훈 : (주) D&A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상근 : 공인회계사, 前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이영면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원 :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장상미 : 시민행동 기획실장  
 전승우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애 :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前 시민행동 정책실장  
 정란아 : 시민행동 정책실장  
 최인욱 :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하승수 : 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  
 하승창 : 前 시민행동 사무처장, 前 정책위원장  
 허광봉 : 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상근활동가 (현직 13명)

김영홍 : 정보인권국장 (1999)  
 오관영 : 사무처장 (1999)  
 정란아 : 정책실장 (2000)  
 최인욱 : 예산감시국장 (2000)  
 박준우 : 기획팀장 (2001)  
 신태중 : 좋은기업국장 (2001)  
 장상미 : 기획실장 (2002)  
 채연하 : 예산감시팀장 (2004)  
 정홍순 : 회계 (2006)  
 유 정 : 좋은기업 팀원 (2007)  
 마응저 : 버마민주화운동 (2009)  
 이기수 : 기획실 팀원 (2009)  
 최성인 : 기획실 팀원 (2009)

### 상근활동가 (전직 21명)

문광승 : 사무국장 (1999. 9.-1999. 12.)  
 장문경 : 기획팀장 (1999. 9.-2000. 10.)  
 신종철 : 정책팀장 (1999. 9.-2000. 12.)  
 오혜근 : 정책팀장 (2000. 10.-2002. 3.)  
 정성훈 : 좋은기업팀장 (1999. 9.-2002. 6.)  
 조경만 : 예산감시팀장 (1999. 9.-2003. 11.)  
 김지영 : 예산감시팀장 (1999. 9.-2003. 12.)  
 백현석 : 예산감시팀장 (1999. 9.-2004. 5.)  
 신승철 : 정보트러스트 (2004. 2.-2004. 5.)  
 이호준 : 기획실 팀원 (2003. 1.-2004. 7.)  
 이규원 : 정보트러스트 (2004. 6.-2005. 5.)  
 강혜영 : 정책실 팀원 (2003. 1.-2005. 6.)  
 신성희 : 회계 (1999. 9.-2005. 12.)  
 윤덕현 : 기획실 팀원 (2004. 10.-2006. 2.)  
 정창수 : 예산감시국장 (1999. 9.-2006. 8.)  
 정선애 : 정책실장 (2000. 2.-2006. 12.)  
 조양호 : 기획실장 (1999. 9.-2006. 12.)  
 하승창 : 사무처장 (1999. 9.-2008. 2.)  
 이미희 : 기획실 팀원 (2006. 10.-2008. 5.)  
 주미진 : 기획팀장 (2005. 5.-2008. 8.)  
 이병국 : 예산팀장 (2005. 2.-2009. 1.)

## 부록 6. 부가정보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문서보관소(<http://info.action.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action.or.kr>)를 포함한  
아래 여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정보

메인 홈페이지 <http://action.or.kr>  
문서보관소 <http://info.action.or.kr>  
사진첩 <http://picasaweb.google.com/actionCANphoto>  
트위터 <http://twitter.com/actioncan>  
오디오 <http://mini.podics.com/122690676377>  
커뮤니티 에피소드 <http://episode.or.kr>

### 주요활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http://issue.action.or.kr/cat>  
정보인권 시민행동 <http://issue.action.or.kr/inforight>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http://issue.action.or.kr/care>  
페어라이프 캠페인 <http://issue.action.or.kr/fairlife>

### 활동블로그

공정사회국 블로그 <http://fair.action.or.kr>  
기획실 블로그 <http://with.action.or.kr>  
정책연구실 블로그 <http://think.action.or.kr>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해 오신  
허광봉 운영위원(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후원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1999-2008)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

발행일\_ 2009년 9월 23일  
발행인\_ 지 현 윤영진 박헌권  
편집인\_ 신태중 장상미  
기획\_ 함께하는 시민행동  
디자인\_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인쇄\_ 파피루스커뮤니케이션즈  
연락처\_ [전화] 02-921-4709 [팩스] 02-3144-4709 [이메일] action@action.or.kr  
[주소]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